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연구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 회 복 지 학 과

박 용 수

2026년 1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연구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 회 복 지 학 과

박 용 수

2026년 1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연구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원 오

이 논문을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1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전 공)

박 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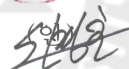
박 용 수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12월

심 사 위 원 장 : 남 일 성  (인)

심 사 위 원 : 양 경 은  (인)

심 사 위 원 : 김 진 우  (인)

심 사 위 원 : 신 명 호 

심 사 위 원 : 정 원 오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한 사회적경제가 그 정체성의 중요 요소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생성하고 심화시켜 나가는지, 그 동태적인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수 요소로 당위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지역에서 자생적이고 내실 있는 연대 조직으로 평가받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광사넷은 정부 의존성을 극복하고 상호거래, 협동기금 조성, 업종별 분과 활동 등 고도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광사넷에 소속된 14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였으며, 수집된 구술 자료를 세마틱(의미 중심) 내러티브 분석 기법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생성 기반 형성 → 생성 → 1차 소비와 생산 → 2차 소비와 생산의 단계를 거치며 나선형으로 발전하며 호의의 시작 → 배려로의 전환 → 참여 생성 → 반복된 상호작용 → 신뢰 생성 → 호혜 관계 형성 → 협력 활동 → 연대 의식 및 규범 형성 → 관계의 확장과 네트워크의 고도화로의 형성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기반 형성기에는 초기 활동가의 조건 없는 ‘호의의 시작’이 구성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배려’로 인식되면서 신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생성기에는 이러한 배려에 대한 응답으로 참여가 생성하였고,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생성과 호혜 관계가 구조화되었다. 1차 소비와 생산기에

는 형성된 신뢰와 호혜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다시 공동체의 연대 의식과 규범을 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차 소비와 생산기에는 강화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외연이 확장되고, 개별 이익을 넘어선 공동의 비전과 차세대로의 신뢰 전수가 일어나는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의 조절 변수가 아니라, 경제 활동 자체를 사회적 관계로 재배태시키는 ‘경제의 재사회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임을 입증하였다. 둘째, 관계의 형성 과정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자본의 기원을 활동가의 진정성 있는 호의와 배려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선형적 발전이 아닌 소비와 생산이 중첩되는 나선형 구조임을 밝혀, 정책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육성할 수 있는 가설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넷째, 심화 과정에 사회적 자본이 기능적 역할을 하여 그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개념-기능적 개념을 포함하여-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며,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호의를 실천하는 활동가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의 전략적인 형성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사회적경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광진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경제의 재사회화 전략, 사회적 자본의 기원, 내러티브 연구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6
1. 사회적 자본	6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6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10
3) 사회적 자본 생성의 기원	16
3) 사회적 자본과의 경제적 관계	19
2. 사회적경제	22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23
2)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8
3.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개 및 연구 사례로의 의미	34
III. 연구 방법	51
1. 내러티브 연구 및 분석 방법	51
2. 연구설계와 절차	56
3. 연구 주제	58
4. 연구참여자 선정	59

5. 연구자의 위치성과 역할	60
6. 윤리적 고려	62
IV.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경험 분석	64
1. 연구참여자 내러티브 범주화	64
2.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	71
3.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종합	117
V. 결론 및 제언	134
1. 연구의 결론	134
2. 연구의 함의와 제언	138
참고문헌	143

표 목 차

[표Ⅱ-1] 2022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37
[표Ⅱ-2] 2021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 리스트(12월 말 기준)	38
[표Ⅲ-1] 연구참여자 명단	59
[표Ⅲ-2] 사회적 자본의 분류와 기능적 관점	60
[표Ⅳ-1] 연구참여자 내러티브 범주화	64



그림 목차

[그림 II-1] 광진구 지리학적 위치	35
[그림 II-2] 광진주민연대의 인큐베이팅 과정	36
[그림 II-3] 상호거래 추이	40
[그림 II-4]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력체계도	42
[그림 II-5] 돌봄 분과 클러스터 구성	43
[그림 II-6] 시민 사회활동가를 위해 빌라 1동 규모의 공동체 주택	45
[그림 II-7] 시민 자산화 건물인 공유공간나눔	47
[그림 IV-1]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1	76
[그림 IV-2]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2	93
[그림 IV-3]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3	105
[그림 IV-4]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4	116
[그림 IV-5]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종합	132
[그림 IV-6] 나선형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1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경제는 개인의 이익 극대화와 경쟁이 핵심 속성인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달리, 연대와 협력, 호혜를 통한 공동체 경제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인류학·사회이론 등에 걸친 방대한 독서에 근거하여 경제사를 재구성한 칼 폴라니(1944)는 경제의 원형과 인류의 지배적인 경제는 신뢰와 호혜적 규범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경제 활동의 동기와 분배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경제에서 사회적 관계를 탈각시켜 버린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인류 경제사에서 최근에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에 나타난 독특한 경제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 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인류의 지배적인 경제체제였던 경제가 사회 속에 묻어있는 호혜의 사회적경제로의 복원을 제안하였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루이지노 브루니도 인간의 이기성과 익명성에 기반한 현재 주류 시장경제 이론을 비판하며 18세기 나폴리 학파의 수장인 안토니오 제노베시의 시민 경제학을 재조명하여, 인간의 ‘사회성’ 과 ‘상호성’ 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중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Bruni & Zamagni, 2004). 이를 근거로 이익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한 도구적 교환 이외의 원칙-상호성, 호혜성-이 경제 활동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경제 활동을 이익 추구하고 도구적 교환 이외의 다른 원칙들이 공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문명적일 수도 비문명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Bruni & Zamagni 2004; 2015 : 24~29; 이은주 2024 : 774). 또한 그는 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시장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결여로 인해 인간성이 훼손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경제로 치닫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경제 영역 안에서 인간의 사회성과 상호성이 작동하는 시민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1990) 역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공유지는 황폐해진다는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 이론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규제)나 시장(사유화)의 관리 방식이 아닌 제3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자원을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해 온 세계 곳곳의 사례들-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모두-과 진화적 게임이론을 근거로 공유자원을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동체적 방식에서는 구성원 간 협동과 호혜를 촉진하는 공동체적 규범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공동체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자의 주장에 의해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시민 경제, 공동체 경제를 포함하여-는 사회관계를 잇는 사회적 자본과는 필수불가분의 관계이다. Evans & Syrett(2007)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학문을 알리는 데 기여한 장원봉은 이를 언급하며,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은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배태되었으며, 경제가 다시 사회적 관계에 포섭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정의하였다(장원봉, 2007: 27~28). 또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면서 사회적경제를 ‘①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②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

사회적 개입 전략' 이라고 보았다(장원봉, 2007: 27~28). 이같이 정의된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상당 분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장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호혜와 연대는 그들로 하여금 시장경쟁 속에 원자화된 경제조직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협력 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혜와 연대의 원리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발전에 핵심 요소이며, 그러나 동시에 호혜와 연대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원리가 경제 자본과 권력의 논리만큼이나 사회를 움직이는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경제가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도 강조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그러나 모든 제도화가 빛과 함께 그림자도 안고 있듯이 지나친 정부 의존성과 주체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의지나 방향에 상관없이 연대와 협동이라는 사회적경제 본연의 가치에 토대한 주체적인 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신명호 2021). 이는 연대와 협동을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이루는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장원봉 2006)이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Evans & Syrett 2007).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이 당위적이고 피상적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있고 실상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비록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관계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과 사회

적 자본의 형성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연구의 접근방법이 경제적 성과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자본을 조절요소나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만 보는 한계가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저명한 학자인 Putnam(1994)은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속성이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탈리아 북부는 사회적 자본이 수준 높게 형성되어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반면 남부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수준이 낮아 경제발전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Putnam의 연구는 이탈리아의 남과 북을 비교하여 연구하여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속성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형성된 이탈리아의 남과 북의 사회적 자본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과정상의 생성과 발전을 볼 수 없으며, 남과 북의 차이를 가지고 결과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탈리아 남과 북의 차이로는 역사적 흐름에 의한 시민 전통의 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Putnam, 1993),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하였는지, 또한 시민 전통의 어떤 역동이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가 2000년에 출간한 저서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은 국가적 차원에서 현대 미국인들의 관계 형성 정도와 공동체의 쇠퇴를 다루고 있다. Putnam은 미국의 1960년대와 현대를 비교하면서 많은 모임과 단체, 교류가 줄어들면서 민주주의의 약화와 공동체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막고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를 재생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 피력하며, 지역 내의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이들 간의 협력과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내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어떻게 협력과 연결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술되지 않아 그 호소를 전략적으로 실천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 Putnam이 1993년의 논문에서 제기한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 사회적 자본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좋은가? ‘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아직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듯 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과정을 연구하여, 사회적경제 전략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회적 자본 실천 전략의 단초를 마련하며, 이와 더불어 Putnam이 제기한 사회적 자본의 발전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연구자는 Hanifan(1920)으로 사회적 자본은 가족과 개인 간의 공감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연계된 집합체라고 정의한 이후,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5)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학자의 사회적 자본 개념 정립과 명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Adler & Kwon, 2002),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다차원성으로 인해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으로까지 확대되어 다차원성이 심화되었다(추양현, 2020).

사회적 자본은 지역 활성화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행정 및 경제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학자들의 연구 목적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성에 기초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유미현 2017).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존재하는 데 상호 면식(Mutual Acquaintance)과 인식(Recognition)이 제도화된 관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현실적,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관계망에서의 귀속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게 되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총체이다(Bourdieu, 1986).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경제 자본의 개념에서 발전시켰다. 그는 경제 자본을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인적자본과 연계하고, 이를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통해 문화자본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원으로 정의하며, 집단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집단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집단의 결속력에 기반을 둔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자본의 양은 연결망의 규모와 그 안에 포함된 주체들의 자본 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Bourdieu, 1986). 그는 이러한 연결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장하려는 집단 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된다고 설명한다(유미현, 2017).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개인들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이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 요소라고 개념화하였다. (Coleman, 1988, p. 98). 이 실체들은 모두 사회 구조의 일부 측면으로 구성되어 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물적 자본이 물리적 대상의 변화를 통해, 인적자본이 개인의 기술과 지식의 변화를 통해 생산적으로 되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 즉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 생산적"이 된다고 강조하였다(Coleman, 1988, p. 100).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단일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세 가지 주요 형태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첫째는 신뢰성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의무와 기대이다. 그는 이를 "신용 증서"에 비유하면서, 사회적 환경의 신뢰성 정도와 실제 의무의 양이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는 정보 채널로서의 사회관계이다. Coleman은 "정보는 행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

요하지만, 정보의 획득에는 비용이 든다"라고 전제하면서(Coleman, 1988, p. 104), 사회관계가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는 규범과 효과적 제재이다. 그는 규범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공공재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Coleman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폐쇄성(closure)이 특정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폐쇄성은 규범의 효과성을 위해 중요하며, 의무와 기대의 신뢰성 있는 구조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Coleman, 1988, p. 107), 폐쇄된 네트워크에서는 평판 메커니즘(reputation mechanism)이 작동하여 약속 불이행이나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대부분의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사적재(private good)라기보다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설명하면서, 한 행위자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면 그가 직접적으로 받는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행위자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Coleman, 1988, p. 116).

또한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청소년의 교육 성취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Coleman, 1988 p. 109-113). 그의 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자원이 동일하더라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 성취도가 크게 달라졌으며, 폐쇄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가진 지역의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율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Coleman의 사회적 자본 이론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소들이 개인과 조직의 행동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 경제발전,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이

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크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은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하였다(Putnam 1993, 2000). 그는 이탈리아 지역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탈리아 북부는 수평적 사회 단체의 참여 및 활동에 의한 사회적 자본 형성 수준이 높아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반면 이탈리아 남부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수준이 낮아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 수준도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에 의한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이며, 사회적 생산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Putnam(1993)의 연구는 Coleman(1988)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의 적용과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개인과 특정 집단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공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자본을 개인적 관계에서 집단적 관계, 즉 거시적 시각으로 확대하여 조직의 공동 이익 달성을 위해 협동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와 같이 조직 내에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를 통해 서로 조정과 협력을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면 가지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회적 관계가 증가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Fukuyama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나 규범의 공유이며, 상호신뢰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Fukuyama, 1995). 그의 대표적인 저서 「신뢰(Trust)」에서 신뢰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을 가족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민간 조직으로 보았다. 민간 조직은 구성원 상호 간의 공동 업무를 가능케 하며, 또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였다(Fukuyama, 1995).

Nna Lin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위치함으로써 접근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체라고 하였다(Nna Lin, 2001).

Woolcock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Woolcock, 1998).

한편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손권상 외(2005)는 한 개인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집합으로, 강문실·양성국(2016)은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우대일(2015)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과정이며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 연결로 설명하였다.

이의연(2018)은 임의로 형성된 가상의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동일시 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는 무형자본이라 정의하였다.

이유리(2019)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과정(Campos et al. 2015)이며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적 연결로 정의하였다(김권수 2022).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Putnam(1994)은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있어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신뢰”를 핵심 요소로 보았다. 또한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의 핵

심적인 구성요소를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로 보았다. 여기서 신뢰는 구성원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규범은 유대감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참여는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Pye(1999)는 민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민성, 사회적 자본, 시민사회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협동, 연결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Putnam의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신뢰”에, 광사넷에 가입한 회원사의 참여 행위를 고려하기 위해 Fukuyama의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중 참여를 추가하여 그 구성요소를 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정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참여

참여란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참여 정도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화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유미현 2017). 예를 들어 교회,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이웃 및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참여란 공동체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가입 자체는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신뢰, 사회적 지지 등을 획득하는 기제가 된다고 보았다. Putnam(1993)은 참여를 수직적 참여와 수평적 참여로 구분하였다(유미현 2017). 수직적 단체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한 일차적 관

계에 기초한 참여를 의미하며, 수평적 참여는 사회의 이차적 관계에 기초하여 참여가 형성된 것을 가리킨다. 참여는 개인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의 정의하는 참여는 사회적 또는 집합적 수준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얻는 혜택이 집단 또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신뢰(Trust)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신뢰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할수록 더 증가하게 되고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한다(Ostrom, 1990).

신뢰는 상대방 또한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확실성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또한 Barber(1983)는 “신뢰를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하였으며, Colman(1988)은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뢰는 사회적 안정, 사회적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며 협동, 감시, 통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다. 신뢰가 있음으로써 행위자들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협동을 할 수 있지만, 신뢰 형성이 되지 못한 관계는 기회주의적이기 쉽다(황영섭 2011).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신뢰의 형성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토대가 된다.”라고 보았다. 또한 “신뢰는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결속 및 통합을 증진시키며, 사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한다. Krishna(2004)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이며, 신뢰를 확

대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신뢰가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신뢰는 여러 학자에 의해 유형화되고 있는데, 먼저 Lewicki & Bunker(1996)는 “신뢰의 발전 단계에 대해 이해타산적 신뢰 단계(calculus based trust), 지식의 신뢰 단계(knowledged based trust), 동일화의 신뢰단계(identification based trust)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축적된 신뢰 형성과 공동체 규범과 가치에 대한 내면화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보았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해타산적 신뢰(calculus-based trust)는 신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를 지키는 단계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신뢰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식의 신뢰(knowledge-based trust)는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동일화의 신뢰(identification-based trust)는 상대방 또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 규범, 가치 등이 개인의 것과 일치함으로써 그것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단계이다(Lewicki & Bunker 1995). 이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표가 달성되는 만큼 개인의 목표도 함께 충족된다(김필진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는 하나의 관계적 속성에서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하게 된다(유미현 2017).

Putnam(1993)은 구성원들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협력이 가능해짐은 물론 구성원들은 협력의 혜택도 얻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맺은 구성원들의 협력 자체가 또다시 신뢰를 강화시켜 상승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형태라고 보았다.

신뢰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내에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신뢰로 인해 주체 간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Svendsen, 2000; Fukuyama, 1995; 권경희, 2003: 35).

(3) 네트워크

Putnam(1993)은 “네트워크의 존재로 인해 신뢰가 상호 이동 및 확산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았다. 또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밀도와 연결성이 높은 조직이 낮은 조직에 비해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 정도가 더 높다.” 라고 보았다. 더불어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규범이 생겨날 가능성이 증가되며, 구성원들 내부 신뢰 형성 및 기회주의적 행동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았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그 속성에 따라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 연계형 네트워크(linking network)로 나뉜다(김필진 2018). Putnam(2000)은 네트워크를 교량형(bridging)과 결속형(bonding)으로 분류하였다. 집단에 결속력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약한 네트워크에 비해 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속형(bonding)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으로 학연, 혈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내부 결속력 및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반면 교량형(bridging) 네트워크는 동질하지는 않지만, 지위와 권력이 비슷한 관계로, 다양한 공동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결속형 네트워크는 교량형 네트워크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김필진 2018).

교량형, 결속형이 네트워크 내부 개인들의 효과에 대해 강조한다면, 연계형 네트워크(linking network)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s of networks)’로 인한 전체 사회적 효과에 대해 중시하는 관점이다. 연계형 네트워크는 권력의 차이가 있는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교량형 네트워크가 비슷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라면, 연계형 네트워크는 제도화된 권위가 다른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신뢰와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결속형 네트워크와는 달리 연계형 네트워크는 사회적으로 열린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필진 2018).

이러한 네트워크 중 수평적(horizontal)인 것은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행위자들을 결집하는 반면, 수직적(vertical)인 것은 동등하지 않은 행위자를 위계질서와 종속의 비대칭적 관계로 연결시킨다.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는 이웃 간의 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스포츠클럽, 대중정당 등과 같은 밀도 높은 수평적 상호작용을 대표한다. 공동체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조밀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김태우 2004).

(4) 규범

규범이란 구성원 간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는 공유된 코드로,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암묵적으로 생성된다. 구성원은 규범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은 규제받는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범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 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규범은 “범죄적 행동에 대한 제약이나, 공동체에 반하는 일탈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Fukuyama(1999)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 내부에 체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자본”으로 보았다. “규범을 지키는 것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행위라고 보았으며, 규범이 행위로 옮겨질 때는 행위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성에 의존한다.”라고 보았다. 또한 Fukuyama는 “사회적 자본이란 둘 이상의 개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자본 가운데 규범이 가장 밑바탕에 있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신뢰와 네트워크 혹은 시민사회의 결사 조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Putnam(1993)도 사회적 자본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규범을 들고 있다. Putnam은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더 효율적인 것과 같이 규범에 의존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규범은 네트워크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기반이 되는 규범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고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상호 호혜성은 성숙된다. 물론 사회적 규범이 부정적인 결과와 행동으로 결합된다면 거래비용은 높아지고 상호 협력은 감소할 것이다. 호혜성의 체계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은 대개 단기적 이타주의(short-term altruism)와 장기적 개별 이익추구자(long-term self-interest)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호혜성은 단기적으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적인 일련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개별 참여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Taylor,1982).

3) 사회적 자본 생성의 기원

사회적 자본 생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연구가 부족하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활발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비

교하며, 사회적 자본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 생성의 원인은 시민적 전통이라고 한다. 시민적 전통으로 다양한 지역 모임과 단체, 시민들의 참여, 통합이다. 그는 이탈리아의 몇 지역은 활동적인 많은 지역 공동체를 가졌으며 이러한 ‘시민 공동체’는 결속력,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통합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여기서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다. 반면 칼라브리아나 시실리와 같은 반대쪽 지역은 시민적이지 못한 지역인데 불어로 ‘Incivism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시민정신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²⁾ 그는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는 지표로 신문 구독률이나 자원적 결사체의 구성원 수, 정치적 권위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반면 Ports(1998)는 Putnam의 지역 단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비판하면서 네 가지를 논지한다. 첫째는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것의 결과와 원인을 분리시켜야 한다. 둘째, 논리의 방향을 사회적 자본의 존재가 사회적 자본이 산출하는 생산 결과보다 명백하게 선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설명할 때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를 통제해야 한다. 넷째,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사적 기원을 밝혀야 한다. 그는 Putnam이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를 비교하면서 잘 통치되는 도시와 잘 통치되지 못한 도시 사이의 차이에 관한 결과를 원인으로 보는 사후적인 해석을 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후적인 해석은 논리적 순환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즉 잘 통치되고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도시는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반면에 가난한 도시는 시민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순환적 논리는 도시가 시민적이면

1) Incivism은 공공심 부족, 시민으로서의 의무 태만, 또는 비애국적 정신이라는 뜻을 지닌다.

2) Alejandro Portes,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중 재인용

시민적인 행동을 하고 만약 시민적이지 않으면 시민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한다.

Portes(1998)는 사회적 자본의 근원은 완성적 동기(consummatory)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s)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완성적 동기의 예로는 관습상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시간에 빚을 갚거나, 구호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며, 도구적 동기는 주로 호혜성의 규범에 따른 타인에 대한 의무를 축적하여, 제공자는 미래에 보상받으리라는 기대하에서 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적 어음의 축적이라는 의무를 보상하는 방식은 그러한 의무가 처음 발생된 맥락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헌신이나 인정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으며 보상의 순간이 불확실하다. 실제로 언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일정이 존재한다면 그 거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중재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교환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그는 도구적 동기는 합리적 행위이론이나 상호성의 근원과 동력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의 근원에 대한 Putnam과 Portes의 논지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Putnam의 사회적 자본의 근원이 시민적 전통의 시민성인 것은 시민성이 우선인지 사회적 자본이 우선인지 논리적 순환성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ortes의 사회적 자본의 기원도 완성된 동기가 환경의 조건에서 생성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구적 동기가 완성된 환경을 만들어 내어, 완성된 동기가 된다고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럼 완성된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 그 해답을 Portes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구적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학의 이론들을 차용한다. 그 이론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합리적 행위이론, 상호성에 대한 이론이다. Portes의 이론은 Putnam이 주장하는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작동하고 남부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Portes에 의해 사회적 자본 생성의 기원이라는 논지는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인지를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만 하는 과제를 더해주고 있다. 즉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논란을 더 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상준(2004)은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결과적으로 그 근원을 ‘한쪽으로는 ‘자기 이해의 단일동기론’과 다른 한쪽으로는 ‘협력적 전통의 역사적 저수지를 제공해 준 역사적 기원’이라는 두 가지 근거에 의지하고 있고, 이것이 공회전하는 문제를 Putnam의 이론적 수단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자원’이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Putnam의 환원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실마리는, 사회적 자본을 어떤 단일 요소로의 환원이 아닌 관계의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김상준, 2004: 87-89)고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자본의 근원을 명확히 밝혀낸 연구는 아직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생성의 근원을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관계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정(+)의 조절 변수로 고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Johanson & Vahlne(1990)는 수출시장에서 해외 거래처와 공급자와의

관계 형성이 해외시장 확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기술적 지식의 학습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해외 고객과 그리고 공급기업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은 기업의 국제화에 정(+)의 영향 관계라고 하였다(김권수 2022).

Lerner et al.(1997)은 경영자의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자가 그렇지 않은 경영자보다 더 큰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장순철 2019). Tsai & Ghoshal(1998)는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자원공유 및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재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다고 하였다(장순철 2019). Yiu & Lau(2008)도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원은 제품 및 조직의 혁신, 다양한 형태의 기업활동을 도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조직 내 지적자본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조직 발전의 기반이 되고, 지적 자산을 공유하는 시장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Nahapiet & Ghoshal, 1998).

Stam & Elfring(2008)은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지향성과 경영 성과와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성을 높여 성과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장순철 2019).

Zhao & Aram(2005)은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의 강도와 다양성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강도와 다양성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김권수 2022).

Thornton & Flynn(2003)은 신뢰에 기반한 응집력을 보유한 네트워크는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새로운 혁신에 투자할 위험을 낮춘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조직 내에서 자발적인 형성과 상호작용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결되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지적자본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게 된다(Lehner, 2014).

Hjerppe(1998)은 국가 간 교차연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신뢰 변수에서 나온 28개국과 시간을 적용한 성장 회귀분석에서 신뢰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을 발견했다.

Lee, Jeong and Chae(2011)도 WVS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신뢰(Trust)를 주요 변수로 하여 27개국 국가 간 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신뢰는 시장실패에 대응하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이루는 등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국내의 사회적 자본 조절 효과 선행연구를 보면, 이승일(2016)의 변혁적 리더십, 사내 기업가정신, 성과와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변혁 리더십과 사내 기업가정신 간에는 부분적으로 조절 효과가 있었고, 사내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김권수 2022).

오영수(2020)는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동반되어야 한다. 공장, 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인 물적 자본과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 전문가 등 인적자본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원 외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개인과 사회, 정부 기관 등 사회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형의 자원인 사회적 자본이 동반되어야만 경제의 선진화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 수준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김권수 2022).

한편 위에서 열거한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제로만 바라보는 한계가 있지만 나카지마 에리(2009)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시스템이 구축된다(태유리 2015 재인용)고 하여 사회적 자본은 단순히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제가 아니라 경제 활동의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았으며, Pettit & McInanahan(2003)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연구에서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사회에 거주할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자본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성과를 촉진하는 긍정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경제발전과 사회적 자본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접근방법이 경제적 성과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자본을 조절요소와 경쟁 관계된 요소로만 한정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적 관점에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다.

2.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21세기 각국이 안고 있는 시장실패, 정부 실패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Bouchard(Ed). 2009; Potts & Hartley, 2015).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부(Social Economy and Innovation Unit)’를 조직해 국가, 지역적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적기업 지원전략 설계, 실행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여미영 2022).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실업 및 양극화 등 사회·경제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노동기구 협동조합 과(ILO Cooperatives Unit)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여미영 2022).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일자리위원회, 2017).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의 다양한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국가마다 학자마다 학문적인 개념이 다양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역사적인 시대 상황에 따라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려는 사상과 시도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은 19세기 상반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하여,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식들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자끄 드푸르니(2017: 35)는 사회적경제는 결사의 자유가 서서히 등장한 역사와 함께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이미 기업과 집단구호기금의 존재 했으며, 그리스인들의 장례와 장례식에 대비하기 위한 헤타이레이아³⁾, 로마인들의 장인 모임에서 진화한 결사체인 소달라티아⁴⁾가 존재했다. 9세기에는 게르만,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3) 헤타이레이아(Hetaireia)는 고대 그리스에서 집단적으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협회나 단체로 대개 도시나 지역사회에서 조직되었으며, 장례식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성묘를 준비하고, 유품을 수집하며, 참석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초기 길드가 등장했다. 11세기부터 동업자조합이 생겼으며 14세기 노동자 조합의 결사체가 등장하였다. 18세기부터는 영국에서 공제조합 운동을 알리는 우애조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애조합은 조합원들이 질병 및 사망할 때 수당을 제공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이념이 등장한다. 노동자 결사체주의와 로버트 오언, 앙리 드 생시몽, 샤를르 푸리에 등의 유토피아주의가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토양이 되어 노동자결사체가 형성되었고, 이 결사체 - 산업자본주의로 인한 대도시 노동자 밀집 지역과 공장 밀집 지역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 들은 질 좋은 빵과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결사체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 교회나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의 외곽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입규칙과 운영이 엄격히 명문화된 특정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결국 국가의 동업조합이나 중세적 질서를 따르는 기관일 수밖에 없었다.

1900년 샤를 지드는 사회적경제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당시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경제가 유발하는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사회적경제를 기존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더욱더 사회적이고 공평한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체제로 상정했던 것 같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시장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직, 예컨대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의 조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신명호 2009). 또한 1901년에는 그전까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으며 철저히 불온 시 되어오던 민간 결사체들이 법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 단체들은 아무런 제약

4)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이들은 일상적인 사적인 이유로 모여 친목을 다지거나, 문화 활동을 하거나, 서로의 이익을 돕는 등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였다(프론투스, 로마의 행정).

없이 번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정치·사회적 개혁을 지향했던 이들 조직은 법적 타협을 이룩한 다음부터 체제 내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협동조합 부문과 자본가들의 시장경제는 1920~1940년대 사이에는 각기 분업을 해오다가, 이후에는 같은 활동 영역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협동조합 역시 시장경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상호공제조합은 주로 의료보험 기능을 수행하다가 국가 주도의 의료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보조하는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더군다나, 민간 단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깊이 관여하게 된다(신명호 2009). 프랑스에서 각각의 발전 경로를 걸어오던 이들 조직은 마침내 1970년, 사회적 힘을 키우고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면서 ‘상호공제조합·협동조합·민간 단체 전국 연락 위원회(CNLAMCA)’를 결성하게 되었다(신명호 2009).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정체성을 표현할 개념어를 모색하던 끝에, 사회학자 앙리 데로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경제 현장’을 채택하게 되며, CNLAMCA에 들어와 있는 조직을 사회적경제로 명명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9년에 유럽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를 채택했는데, 그에 따르면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 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김성기 2011).

불어권과 라틴어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모두가 합의한 공통의 정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사회적경제 자체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88~1990년 벨기에의 완론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되었고, 전원 합의로 채택되었다. “사회적경제란 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이나 결

사체, 공제조합 또는 재단과 같은 회(society)에 의해 수행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사회적경제에서 채택한 원칙으로 다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닌 회원(구성원)이나 커뮤니티(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두 번째 경영의 자율성, 세 번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끝으로 네 번째 소득의 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사람과 노동의 우위이다(자끄 드푸르니, 2017: 57).

캐나다 퀘벡 상띠에의 사회적경제를 구분하는 기준도 완문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정의와 유사하여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 창출이나 금융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나 집단에 봉사하는 것, 국가와의 관계에서 경영의 자율성, 이용자와 노동자를 참여시킨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잉여와 소득의 분배에서 자본에 대한 사람과 노동의 우위이다(자끄 드푸르니, 2017: 61).

반면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보다는 비영리 섹터, 제3섹터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오랜 전통사회에서 강하게 유지되었던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적 활동으로 1920년 지식인들 중심으로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경성 소비조합과 목포 소비조합에서부터 기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농업협동조합이 정부의 통제로 관세화되었지만 1960년 부산 피난민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메리가별 수녀를 중심으로 '성가신용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되면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졌으며, 1983년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가 창립되어 한살림,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등이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빈민 운동진영에서의 생산공동체 운동을 통해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하였다(장원봉 2006 : 235-239).

외환 이후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기업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제도적 시대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도화로 인해 사회적경제 동형화 우려가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를 그것이 가진 역사성과 고유성을 통해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⁵⁾(2022)는 사회적경제의 역사성을 첫째, 문제의 직면을 헤쳐 나가기 위한 동료들과 연대적 실천이며, 둘째 민중의 자조 경험의 확대로 호혜의 주고-받기를 통해 민중들의 자조를 구현해 나가며, 셋째 시민권을 확장하여 국가의 제도화 이전에 여성의 투표권 인정, 최저 임금제도의 도입, 부조를 통한 보험, 노동 통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시민권을 확장하여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하였다(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2, 29-3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022)는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원봉(2006: 299)은 사회적경제 동형화의 우려를 예견한 듯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을 주장했다. “자본과 권력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이다.” 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경제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그 활동이 다양하며 그

5)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6년 여 동안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한 연대단체로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목적이 있다 (http://www.ksenet.org/?page_id=990, 2023년 4월 23일 접속)

것을 정의하는 학문적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속에서도 공통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경제적 불합리함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끊임없는 결사와 경제활동이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방식이며, 더 나아가서 참여경제를 통해 사회를 바꾸려는 운동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칼 폴라니(2009)는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았다. 악마의 맷돌로 비유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을 맷돌로 갈아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원자화시킨다. 산업혁명과 그 이후 성립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의 모든 관계를 부서뜨려 시장에 먹히게 하고 있다. 시장가격에 따라 임금이 깎이거나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 경쟁에 밀린 영세자영업자들은 시장의 먹혀 희생되고 있다. 폴라니는 사회를, 사람을 인간답게 지켜주는 관계로 보았으며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경제와 시장에 복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 활동을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결된 문제라고 보았으며 경제 활동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폴라니는 경제개념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상호의존성, 호혜, 규범, 상호 협력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이지노 부르니(2004)는 시민 경제라는 개념으로 시장자유주의의 폐해를 논하며, 시장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계가 살아있는 시민품질

시장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제적 요소의 하나로 아가페적 요소를 발견하여, 시장거래 안에 호혜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루이지노 부르니, 2020).

또한 상호성을 공동체나 조직 내에서 연대와 협력이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며, 시민 생활 속에는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호성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진화적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는 상호성을 계약의 상호성, 우정의 상호성, 무조건적 상호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약의 상호성은 시장교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조건부적이며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우정의 상호성은 필리아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며 조건 없는 협력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응답이 없을 때 관계를 종료하는 ‘용감한 협력자’의 방식이다. 무조건적 상호성은 자비, 배려, 조건, 호의, 조건 없는 베품과 같은 행위로 공동체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경제 영역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브루니는 이를 ‘자비로운 협력자’ 전략으로 명명한다.

브루니는 이 세 가지 상호성이 보완적으로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방적 이타주의로 간주되었던 자선이나 조건 없는 베품이 상호성의 한 유형인 ‘무조건적 상호성’에 해당하며, 무조건적 상호성의 행위들이 공동체와 조직의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점을 다차원적 상호성의 역학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무조건적 상호성’ (자비로운/무조건적 협력자)의 빈도가 ‘계약의 상호성’ (신중한 협력자)보다 높을 경우, ‘무조건적 상호성’ 뿐만 아니라 ‘우정의 상호성’ (용감한/조건부 협력자)도 함께 소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조건적 상호성’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공동체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상호성의 균형 있게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은주, 2024).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조건 없는 베품에 주목하고 있다. 이흥택(2019)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수익이 많지 않음에도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경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데, 이러한 활동의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다양한 가치 지향성에서 구현되는 배려(regard)가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가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는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가치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경험하는 정서적 공감이나 개인의 가치 지향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에서 나타나는 배려는 신뢰, 협력, 참여 등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체들의 소통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홍택 2019, 46-47).

Offer(1997;2013)는 경제 활동에서 배려(regard)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며, 거래에서 상호작용은 배려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배려가 있는 거래는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그는 배려가 신뢰 형성의 강력한 동기가 되며, 협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Offer에 따르면, 배려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의미하며, 이는 인정(acknowledgement), 관심(attention), 수용(acceptance), 존중(respect), 평판(reputation), 지위(status), 권력(power), 친밀감(intimacy), 사랑(love), 우정(friendship), 친족 관계(kinship), 사교성(sociability)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배려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타인의 배려는 일종의 신호(signal)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신호는 진위 여부, 즉 진정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호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이해관계 없이(disinterested), 일방적으로(unilateral), 진정성 있게(authentic) 배려할 수 있는 존재임이 알려져야 한다. Offer는 배려는 감정(호의적인 감정, 친절함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회적 신호이며, 이 신호는 위조될 수 있고, 계산적으

로 연출될 수 있으며, 권력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 검증이 필수적이고, 진정성이 인증되면 수혜자는 그 배려를 ‘믿을 수 있는 인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결과 공감, 신뢰, 상호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Offer, 2013: 285-286).

오스트롬(1990)은 다양한 게임이론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의 규범의 힘이 공유경제를 성공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였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이익을 통제하는 상호신뢰의 규범이 필요하며, 규범이 존재 할 때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소득은 된다고 하였다.

칼 폴라니, 루이지노 부르니, 오스트롬은 시장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시장의 이익 추구와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 규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승자독식의 경제문제를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장원봉(2007: 27~28)은 사회적경제의 용어의 기원은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배태되었으며, 사회에 포섭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경제의 재사회화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를 시도하면서 사회적경제는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②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 전략’이라고 하였다(장원봉, 2007: 27~28).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에 기초해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그것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장점

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조직 간의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협력은 그들로 하여금 시장경쟁 속에 원자화된 경제조직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협력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고 하였다. 연대의 원리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만큼이나 사회를 움직이는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경제가 입증해야 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연계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수평적 협력체계는 그들의 민주적 구조와 귀속감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규모의 경제가 주는 시너지 효과를 사회적 편익으로 제공한다고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장원봉 2009).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로 Evans & Syrett(2007)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고 주장한다.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서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한다(유미현 2017).

Putnam(1993)도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로의 속성이 있다고 강조함을 추론하면 사회적 자본은 시장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경제 성격을 지니게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위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재라는 의미보다는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격을 사회적경제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바라보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경제의 본질적인 요소로 접근한 연구와는 다르게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능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추양현(2020)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시장 지향성과 경영 성과와의 관계 연

구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시장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인 인지적 자본과 관계적 자본은 조절 효과가 있었으나, 구조적 자본은 조절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장 지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김권수 2022).

여미영(2015).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준희(2016)는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후행변수일 때,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고, 선행변수일 때도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김권수 2022).

김권수(2022)는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4개의 독립 변수(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 지원제도, 시장 지향성)와 2개의 매개변수(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성과) 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지속가능성) 사이의 모든 경로에서 강화된 조절 효과가 확인하였고, 유미현(2017)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무형의 자원으로 확인하였다.

김정원(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 비영리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준희(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기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선순환 공진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경제의 경제사회학적 관점과 성과적인 관점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성과를 올리

기 위한 효과 요소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를 사회적경제로 재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더불어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단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다른 정체성의 성격을 갖게 하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으로써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긍정의 효과로도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성격이 다른 사회적경제가 그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생성했으며, 생성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작동은 어떠한지 탐구하기에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3.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개 및 연구 사례로의 의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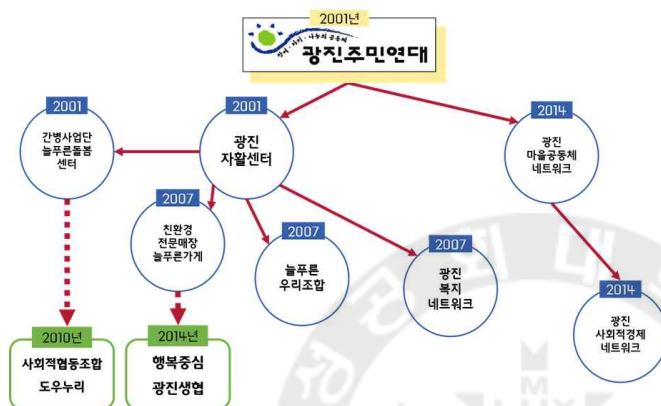
1) 서울 광진지역사회의 현황

서울시의 광진구는 서울시 동남쪽에 소재하는 인구 35만의 기초자치구로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건대입구역 인근 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속칭 「강북의 강남」으로 불려진다. 광진구는 주택소유자의 재개발 꿈과 세입자의 설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강변 쪽에는 부촌, 어린이대공원 북쪽에는 빈촌이 분포하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가구원 수는 2.48에서 2.34로 꾸준히 줄고 있으며, 최근 화양동, 군자동, 능동은 1인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사업체가 20,711개(84%) 반면 회사법인 2,829개(11%), 종사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체는 20,680개(84%)로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이며, 5인

6)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소개는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2024). 사회적경제로 사회복지하기. 한울에 수록된 박용수의 사회적경제로 이루는 지역사회복지를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한 내용이다.

광진주민연대는 2001년 광진자활후견기관(현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를 위탁받으며 지역의 복지니즈와 맞닿게 된다. 광진주민연대는 광진지역자활센터가 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넘어서서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하도록 건인하였다. 광진지역자활센터의 활동으로 지역의 복지단체를 지역복지 운동을 위한 광진복지네트워크로 조직화하였으며, 빈민층의



[그림 II-3] 광진주민연대의 인큐베이팅 과정

자조 금고인 늘푸른우리 조합(현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7))을 육성, 가난한 이들의 돌봄공동체인 간병사업단 늘푸른돌봄센터8),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행복중심광진생협을 설립하였다. 이후 광진주민연대를 비

롯한 기존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인큐베이팅(플랫폼) 기능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창립하게 된다.

진성희(2016)는 광진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구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기에 설립된 다른 네트워크와 달리 내부 구성원 간의 연계는 물론, 다른 네트워크 내 조직들 과도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가장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진성희 2016:55). 따라서 동일한 지역의 시민사회 문화 속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요인과 그 생성 및 발전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학술적으로

7) 빈곤층의 자조 금고로 250명의 조합원, 5억의 자본금으로 신용과 급전,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8) 늘푸른돌봄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로 성장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직원 850명, 조합원이 900명으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3) 광진 지역의 사회적경제

2022년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Ⅱ-1] 2022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구분	소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인증	예비			
기업 수	193개	15개	9개	5개	29개	135개

이 중 협동조합은 40% 정도만 영업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중복을 빼면 약 70~80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휴면 비율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큰 차이가 없다.

광진구의 사회적경제는 2012년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간의 교류하고 있었다. 2013년 겨울 공동송년회를 개최하고 네이버밴드를 만들면서 협동조합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

4) 광진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성

2013년 겨울부터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협의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매월 준비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명칭으로 2014년 7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한다. 참석회원은 사회적기업 정립전자, 사회적기업 좋은세상베이커리,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광진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행복기프트, 마을기업 희망을 심는 나무, 마을기업 아리청정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광진주민연대, 사회적기업 21세기자막단, 시니어협동조합, 광진마을생태계사업단, 광진마을넷, 꿈결 협동조합,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 마을기업인큐베이이다. 창립 목적은 ‘네트

워크는 조직 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광진구 협동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향하며, 내부거래 및 협업을 촉진하여, 자본보다 사람이 · 이윤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추구한다.’ 9)

이후로 매달 전체 회의로 - 회원사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로 총회하고는 위상이 다른 상호 협력과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이 전체 회의는 정기운영위원회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네트워크 초기 참여율은 90%, 2021년 회원사가 59개로 확대되면서 55%대로 낮아지게 된다. 창립 초기에는 광진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유관 단체, 지원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광진구에서 타구로 이사하는 회원사가 발생하여 그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에 국한하지 않고, 광진구에서 주요 사업을 하는 사회적 목적이 있는 사업체로 회원자격을 확대하고, 회원자격을 심의하는 조합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조합원자격심의의 기준은 법인격 여부, 광진구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목적을 광진구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었다. 2021년까지 매년 5~10개의 신규회원이 가입되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조직, 개인 기업, 시민단체까지 다양하게 가입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광진구 소재지의 영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70%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다.

2021년 12월 말 회원사 리스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Ⅱ-2] 2021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 리스트(12월 말 기준)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마을기업)	광진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광진우리동네자 전거포협동조합 (자활기업)
광진주민연대	광진지역자활센터	늘푸른 되살림 협동조합 (자활기업)	늘푸른사회적협 동조합
다민법률사무소	광진다이음협동조합	더불어내과	더블루피엠씨 (사회적기업)

9)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 자료집, 2014

돌봄플러스사회적협 동조합	동네친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회적기업)	라이트라이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과집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모아사회적협동조합	복지유니온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 터
새날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협동조합	아로마테라피 생활문화 협동조합	아트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	에듀툴킷디자인연구 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랩	우리마을미디어 협동조합
인스케어 코어 (사회적기업)	정립전자 (사회적기업)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하나리더투어 (사회적기업)	한국광고시설물 협동조합	한국동화사회적협 동조합	한국사회혁신금 융주식회사(사회 적기업)
학습공동체 아카데미쿵	한국전산협동조합	한국세무사협동조 합	한빛노동법률사 무소
함께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해오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건축협동조합	행복중심 광진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헬스브릿지 (예비사회적기업)	화유플라워&원예치 료센터 (사회적기업)	힐링아트문화생활 협동조합	21세기자막단
EDS인재교육협동조 합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광진우리동네자전 거포3호점 협동조합	누리배송협동조 합
심플라이프엔워크랩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봉봉봉	협동조합 더 나은	마법 마을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태일공방사회적협동 조합	플레이넷 (예비사회적기업)	주거돌봄협동조합	

네트워크는 2015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2019년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더 보편적인 명칭인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광사넷)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네트워크의 성격을 상호 협력과 협업으로 사업 방향을 가져갔다. 이는 타 기초지역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는 차별되는 부분으로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정책의 대응을 위해 - 구체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탁받기 위해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광진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 대응보다는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하고, 정부 정책은 활용을 위한 자원으로 보았다.

이는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니즈인 빈곤 문제해결에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사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5) 상호호혜 관계 형성

상호호혜 관계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는 차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호혜 관계를 통해 이익만으로의 거래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회를 위한 경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상호 호혜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수혜대상자와 베푸는 자와의 간극을 넘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혜자가 영원히 수혜를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면 복지의 효율과 만족도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더 나아가서 베푸는 자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히 복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광사넷에 소속된 회원사의 공통의 필요와 욕구는 기업의 생존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에 기대거나, 시장에 편입되어 없어지거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상호호혜를 통해 생존을 지속하는 대안이 모색되었다. 상호호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구매해 주는 상호거래를



[그림 II-4] 상호거래 추이

촉진하기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호거래 매출액의 2%를 적립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호거래는 바로 발생하지 않았다. 회원사는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팔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

으나, 네트워크에 속한 타 회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품질 좋은 것은 대기업의 것을, 품질과 상관없는 것은 중국산을 선호했다. 첫 번째 상호거래가 일어난 것은 네트워크 창립인 2014년 7월부터 9개월 만인 2015년 4월(2일)에 일어났다. 회원사가 회원사인 자활기업의 행복기프트와 행복중심광진생협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며, 상호거래 매출액의 2%인 26,000원을 적립하였다. 상호거래가 일어나기까지 회원사의 대표와 관리자들은 매월 모이는 회의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회원사 대표의 얼굴을 보고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상호거래는 2022년에는 3억 6천으로 확대되었다. 상호거래를 통해 일어난 매출액의 2%를 적립한 인내 기금인 광진협동기금은 1억15백으로 확대되었다. 광진협동기금은 회원사간의 상호거래 매출총액(부가세 포함)의 2%, 회원사의 회비, 후원금으로 조성되었으며, 회원사에 긴급한 신용대출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상호호혜의 관계는 계속된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이후 작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협업체계 마련

상호호혜의 관계는 협동의 구조화를 통해 보다 발전한다.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참여를 높이고, 회원사의 필요와 욕구를 세분화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사의 경영을 돕는 경영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광진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바로 네트워크 자체로 해석하여, 네트워크 안에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구조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회원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회의체계와 협력체계, 서비스체계를 구성했다.



(1) 회의 체계

회의체계는 총회에서 연간 사업 방향과 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승인된 계획을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가 상시

의결로 세부집행

[그림 II-5]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력체계도

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안을 각 분과의 분과장과 집행위원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된다. 2021년부터는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연석회의로 모여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월 전체가 모이는 정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참여와 의견조율을 하며, 조합원자격심의위원회(2016)에서는 회원가입과 탈퇴의 자격 검증을, 거래조성위원회(2016)에서는 상호거래, 공공 구매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정책 논의를, 기금위원회(2017)에서는 광진협동기금의 운영과 대출 승인을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2016)에서는 2017년에 마련한 회원사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규정의 검토와 적용을 감사단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2) 분과체계

협업체계로는 돌봄서비스업종의 회원사가 모여 돌봄 분과를, 교육사업을 하는 회원사가 모여 교육분과를, 주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원사가 모여 주거 복지분과를, 온라인판매와 관련한 회원 기업이 모여 마을이야기광진(2022년 유통분과로 사업역할을 확장함)라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먹거리 관련

회원사가 모여 먹거리 분과를 2022년에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원사가 환경분과를 조성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기업이 따로 모여 매달 회의를 하며 협업사업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접근과 전문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각 분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돌봄 분과는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요양 서비스, 사회적기업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의 정서 서비스¹⁰⁾,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의 영양서비스, 사회적기업의 인스케어코어의 청소 서비스, 사회적기업 라이트라이프의 정리정돈서비스, 광진지역자활센터의 빨래 서비스, 사회적기업 헬스



[그림 II-6] 돌봄 분과의 클러스터 구성

브릿지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클러스터로 묶어 원스톱으로 어르신 댁에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는 각종 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가 각각이 분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공급

이 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하여 한 어르신의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접근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계의 사회적경제 기업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와 전문성,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벤치마킹 되어 서울돌봄SOS센터라는 서울시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

1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놀이를 어르신의 재가 정서 서비스로 개발하였다.

교육분과는 2015년 겨울부터 시작되어 2022년에는 11개 기업 - 함께누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담쟁이협동조합, 해오름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소셜 랩,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화유폴라워앤원예치료센터, 사회적기업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 EDS협동조합, 아카데미쿵, 동부여성발전센터 - 이 모여 협업하고 있다. 광사넷 회원사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하며, 중장기적으로 회원사의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가 및 협동조합 창업 지원,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커리큘럼과 네트워크 개발, 멘토 양성 및 컨설팅 멤버 조직화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11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교육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였지만, 서로 교육프로그램이 겹치는 등 갈등이 있었지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집대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다른 회원사의 교육 커리큘럼을 연계하여 더욱더 큰 교육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2020년부터는 공동의 사업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사회적 가치 측정을 공동의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 사업으로 3억가량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거복지분과는 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위탁 사업), 마을과집협동조합, 행복건축협동조합, 주거돌봄협동조합,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광진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동네친구, 서울청년센터 광진오랑, 협동조합 소셜 랩이 모여 지역의 주거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공급하기 위해 출발하여 2022년에는 광사넷의 회원사로만 구성하지 않고 지역의 유관단체를 포함하여 활동하고 있다. 광사넷은 사회적경제 기업 중심의 주거사업의 협업을 위한 분과로 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주거복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연대하는 네트워크로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주거분과는 협업을 통해 주거복지상담, 긴급주택설립을 통해 위기가구의 임시 주거공급, 광



[그림 II-7] 시민사회활동을 위해 빌라 1동 규모의 공동체 주택(현재 시민사회활동가 7가구가 살고 있다) 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편의 서비스를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부동산회사 설립, 노후주택 조사를 통해 주택개량 모델을 수립하고,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공동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DB를 구축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등지 마련을 위해 공동체 주택 교육 등 연간계획을 준비하고, 광진구 주거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

마을 이야기 광진분과는 온라인 어플을 통해 지역 소식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쇼핑물을 집적하고 ‘광화페’¹¹⁾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지역 순환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체 역량의 부족으로 사업이 담보상태에 머물다가 2022년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보다 개발하고 판매하는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변경되었다.

마을이야기 광진의 어플의 현황은 회원수 465(개인 337, 기업 128), 가계상품 930종, 광 화페 거래 건수 454건, 광화환전액 15,693,418광(2021

11) 광진구의 “광” 자를 따서 빛 광자의 지역화폐 발행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려고 시도한 사업이다.

년), 원화 환전액 6,346,569원(2021년)이다.

먹거리 분과는 2020년에 동부여성발전센터, 담쟁이협동조합, 미나리협동조합, 함께누리사회적협동조합,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 복지유니온, 행복중심광진생협, 협동조합 더나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구성 목적은 광진 지역의 「생산 - 유통 - 가공 - 소비 - 교육」의 순환 체계 마련, 광진구민의 식생활 개선, 도농 상호거래를 통한 농촌 공동체 육성,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이다. 먹거리 분과는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회의와 집행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먹거리 환경교육, 50+독거 남성과 함께 먹거리 교육 및 공동식사, 자활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조사, 괴산과 함께 도농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3) 서비스체계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경영지원서비스를 네트워크 안에 두어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경영지원서비스의 공급을 관련된 회원사가 하게 함으로 회원사의 고유사업을 개발 육성하고자 했다. 경영, 행정 및 컨설팅 서비스로는 기업의 세무와 법률지원 서비스, 경영 및 행정 컨설팅 서비스, 금융 지원 서비스, 홍보 지원 서비스, 공간임대 서비스,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세무 서비스는 기업의 세무 기장과 세무조정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회원사가 비용의 50%, 네트워크가 50%를 지급하고 있다. 회원사인 세무사협동조합이 이를 맡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의 세무 기장이 다른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있어서 타 세무사보다 전문적이며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는 매년 등기 변경을 대행해 주며, 기업의 법률적 이슈가 나타날 때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다. 회원사인 다민법률사무소가 이를 맡고 있

다.

경영, 행정 및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의 공모제안,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인증, 경영평가와 자문으로 관련된 회원사들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대표가 모든 경영 및 행정을 총괄하고 실무까지 맡고 있어서, 경영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전문가가 붙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한다.

금융 지원 서비스는 광진협동기금을 통한 급전 대출, 공제부금 조성을 통한 공제 대출을 통해 기업의 경영상 자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 최대 2천만 원의 연 3%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610,000천원(25건)이며, 회원사인 사회적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이 대행하고 있다.

홍보 지원 서비스는 작은 기업이 여력이 부족한 홍보와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 및 상품디자인의 향상,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다.

공간임대 서비스는 2017년 중곡동의 시민 자산화를 통해 15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하여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시민 자



[그림 II-8] 시민 자산화 건물인
공유공간나눔

산화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공동으로 소유함으로 임대를 통한 개인의 수익을 제거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자산 소유 방식이다. 주위의 임대료보다 40%가 저렴하게 임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이사의 염려가 없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7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시중가의 10%대의 임대료로 사업장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 지원 서비스는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의 기존 사업가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위해 지원해 주는 창업 서비스이다. 창업 지원 서비스는 주로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용역을 수주받아 추진하고 있다.

7) 사회적 자본의 형성 사례로 광사넷의 의미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 호혜를 통한 공동체 경제의 특성을 가지며, 호혜와 연대에 기초해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을 정체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자원으로서, 협력적 행위를 촉진해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에서 협동과 연대의 원칙이 중요하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협력의 네트워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며,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결성 및 운영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동반 상승을 발휘하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는 흔히 ‘공유의 비극’이나 ‘집합행동의 딜레마’로 설명되는, 합리적 개인들이 전체를 위한 협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네트워크 참여 기업들은 회의 참여, 회비 납부, 규정 준수 등의 비용은 당장 지출되지만, 상호 협력을 가져올 장래의 시너지 효과는 불확실한 ‘편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신뢰가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작동이 어렵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 이론들은 사회적 자본의 존재가 관계와 행위의 결과를 향상하게 시킨다는 현상에 대해 설명력을 가지지만, “사회적 자본은 왜, 어떻게 생성되는가?”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떤 과

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오스트롬(1990)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선 성공 사례들을 보며 제기했던 질문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에 대하여 준 자발적으로 순응하는가?”라는 물음은, 사회적경제의 협동 네트워크의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생성 과정을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광사넷의 사례 연구의 정당성은 여타 지역의 사회적경제 협의회가 행정기관 상대로 지원을 받기 위한 느슨한 회의체에 머무는 것과 달리, 내실 있게 운영되는 연대조직체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사넷이 연구 사례로서 가지는 주요 특징과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경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이은주(2023)의 ‘시민적 협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는 협력과 연대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광사넷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광사넷의 9년간의 협력 경험을 심층 분석하여, 광사넷의 회원사 간 공동사업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장치들을 운영-구체적으로 상호거래, 다양한 회의체제, 공동작업-으로 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되며 업종별 회원사들의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배려와 의무/호혜, 교환의 논리가 상호보완하며 협력 장치들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 협력에서의 배려의 논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광사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이은주 2023).

둘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보여준다. 광사넷은 정기운영위원회와 분과 모임과 사업부¹²⁾ 회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 네트워크 역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요인이다. 또한 회원사 간 재

12) 사업부는 분과의 회의체제에서 주는 다양한 의제 참여의 비용을 제거하고 특정 사업의 협업만을 위해 모임이다.

하나 서비스를 서로 구매하는 상호거래가 비중 있게 일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상호거래액은 4억 1,500만 원에 달한다. 상호거래 매출액의 2%를 적립하여 협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억 3,500만 원의 공동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김미영 2024). 이는 광사넷의 참여 기업 간 호혜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며, 신뢰와 협동을 통한 기금 운용 등 협력 사업이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외부 의존성을 극복한 자생적 저력을 입증하였다. 서울시장과 광진구청장이 바뀌면서 9년간 위탁 운영해 오던 ‘광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이 2024년에 종료되어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흔들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은 광사넷의 내부적인 자생력과 공동체의 견고함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신명호 2025). 이는 광사넷이 고도화되어 지속가능성을 획득하였으며, 차세대로의 전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사넷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현재까지의 사회적 자본 이론들이 풀어내지 못한 ‘사회적 자본의 생성 및 심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및 분석 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로 사회적 자본의 생성 및 소비, 재생산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고찰하고 함의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방법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개념적, 이론적 탐색을 위해 문헌 연구와 이론 모형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Bourdieu(1986), Coleman(1988)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자본의 사회 경험을 측정하는 시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주로 비교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Putnam(1993, 2000)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사회적 자본을 다차원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혼합방법, 네트워크 분석기법이 적용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사회적 자본을 양적연구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워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Woolcock(1998), Lin(2001)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가 늘고 있으나, 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연구하는 양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 연구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질적연구는 Zuo, Peixin(2022)의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nd its benefits : a case-based qualitative study of internationalising SMEs. University of Sheffield로 사회적 자본의 신뢰 구축, 상호작용, 관계망 확대의 과정과 그 요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Zuo는 MedTech분야의 4개 중소기업을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실현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자본 창출은 여러 단계가 결합된 과정으로 근원적 과정, 가용성의 과정, 실현의 과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는 과정 중심이기는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관찰 측면이 부족한, 단면적 분석의 한계를 지녔다. 또한 Zuo(2022)의 또 다른 연구로 A qualitative approach to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Experiences of a cohort는 칠레 거주자 60~70세를 대상으로 40건의 면담을 진행함으로 사회적 자본의 결속형에서 교량형으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며 그것의 일부 과정을 보여준 연구로 전체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Zuo의 질적연구의 시도를 보다 심화하여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사회적 자본의 생성부터 심화까지의 형성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Zuo의 질적연구에 대한 차별점으로는 Zuo의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기능적 측면으로 경제적 효과로 환원되는 실용주의적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본 연구는 Putnam의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맥락에서, 시민의 참여, 호혜 관계 등 시민적 가치에 더 중점이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시도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의 생성과 심화의 형성 과정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이제까지의 양적연구, 비교연구, 사례 연구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와 주제가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이므로, 사회적경제로 국한하여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연구를 이끌어 온 Clandinin(2007)은 ‘경험에 대한 관점의 틀

안에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초점은 오직 개인의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 구성되고, 형성되고, 표현되고, 실행되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에도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지만, 그 개인의 경험은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으로 관계되어 개인을 넘어서 보편적 이론을 형성하는데 함의를 준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연구에 모티브를 준 듀이(1938)도 경험이론에서 사람의 경험은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지속성을 갖는다고 하며 Clandinin(2007)은 경험은 시간, 장소, 사회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내러티브의 탐구 공간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특정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이론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광진 지역이라는 장소성과 광사넷이라는 사회성의 세 축으로 분석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가 개인의 경험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시간, 장소, 사회성이 있는 개인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개인의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들 경험의 내러티브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내러티브를 부여하여 제도적인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에서의 이론적 함의를 찾아내는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연구 방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가 갖는 의미들을 범주화하였다. 내러티브 범주화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이야기를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각각의 내러티브의 주제를 분류하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의 의미를 탐색하여, 사회적경제에서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2) 내러티브 분석 방법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시간, 장소, 사회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접근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어떤 분석 초점과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분석 유형이 구분된다. 내러티브 분석은 구조적 내러티브 분석, 담론 분석적 내러티브 접근, 세마틱(의미 중심) 내러티브 분석(Semantic Narrative Analysis)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Riessman, 2008; Chase, 2011).

이러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연구자가 무엇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며, 내러티브 분석을 서사적 기술과 혼동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론적 절차라 할 수 있다.

구조적 내러티브 분석(structural narrative analysis)은 내러티브 연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기승전결 중심의 서사 구조 분석으로 이야기의 시간적 전개 구조에 주목한다. 이 접근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발단-사건-전개-결말-교훈으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를 분석 단위로 삼는다. “서사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순서에 해당하는 일련의 절들로 구성된다.”라는 Labov와 Waletzky(1967)의 언급처럼 연구자는 개별 참여자의 생애사나 사건 경험을 완결된 이야기 단위로 재구성하며, 내러티브의 의미는 이야기의 ‘구조적 완성도’와 사건 배열 속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구조적 내러티브 분석은 개별 사례의 심층적 서사 재현에 강점을 갖는다(Labov & Waletzky, 1967, p. 20).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목적으로 한 명보다는 다수의 집합적인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의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보다 다수의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이 적합하기에 한 연

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기승전결 구조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연구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연구의 또 다른 유형은 담론 분석적 접근(discursive narrative analysis)이다. 이 방식은 이야기의 내용보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에 초점을 둔다(Chase, 2011). 담론 분석적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내러티브가 권력관계, 제도적 위치, 발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며, 언어 사용 자체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발화 위치보다는, 사회적경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경험한 과정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기에 담론 분석적 접근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마틱 내러티브 분석(semantic narrative analysis)은 내러티브를 완결된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의미 단위들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이 접근에서 분석의 초점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가’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반복적으로 진술되는가에 놓인다(Riessman, 2008). Riessman은 ‘세마틱 내러티브 분석은 내러티브의 형식이나 구조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라고(Riessman, 2008, p. 54) 언급한다. 세마틱 내러티브 분석에서는 여러 참여자의 개별 이야기를 분절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경험, 공유되는 의미 해석, 공통된 행위 인식을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집합적 경험의 의미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자들이 경험한 호혜, 신뢰, 연대, 규범, 관계 등이 어떠한 의미 패턴으로 반복·구성되는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는 개별 생애 서사가 아니라, 다수의 내러티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의미의 집적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마틱 내러티브 분석은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같이 집합적인 관계적 경험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마틱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고,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다수의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험과 인식 표현을 중심으로 1차 의미 코드 도출하고, 유사한 의미 코드들을 범주화하여 상위 의미 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 주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 경험에서 과정적인 의미가 어떤지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설계 및 절차

연구설계와 절차는 내러티브 연구의 5단계 절차로 이루어졌다.

1) 내러티브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현장에 머물기(being in the field), 현장에서 텍스트로 이동하기(from field to field texts),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field texts), 잠정적 텍스트 작성하기(interim research texts),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s) 구성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순환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1) 현장에 머물기/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진입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 세계를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이미 현장의 구성원으로 초기부터 활동을 함께 해온 참여적 연구자이다. ‘현장에 머물기/들어가기’의 과정은 연구 시작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객관적 시선으로 텍스트화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2) 현장에서 텍스트로 이동하기(from field to field texts)

두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이동하기로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연구자가 현장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거리 두기와 친숙하기를 반복하며 객관적 관찰자와 적극적 대화자로의 역할을 하며 현장 노트를 기록하며 면담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고 자료수집 방법과 목록을 정리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오랜 세월 현장에 머무른 참여적 연구자로 연구참여자들의 현장을 이해하고 면담의 준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광사넷 참여 연도와 광사넷 참여 정도를 파악하여 면담자를 선정하고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준거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광사넷 창립 전부터 연차적으로 선정했으며, 면담의 구술 내용으로는 광사넷에 참여하기 전, 참여하여 된 계기, 참여 하면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과 감정, 그리고 변화되는 경험과 감정이다.

(3)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field texts)

연구참여자의 구술을 수집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총 1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시에 1회 더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 문자화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활동이 담긴 광사넷 총회 자료집과 분과의 회의 문서를 함께 검

토하여, 각 인물이 현장에 참여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였다.

(4) 잠정적 텍스트 작성하기(interim research texts)

네 번째는 현장 텍스트(field texts)에서 연구텍스트(research texts) 구성하는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읽기와 비교 과정을 통해 서사의 구조, 주요 주제, 의미의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시간적 연속성,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장소적 맥락은 해석의 주요 축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정리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텍스트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여러 번 반복하여 탐구하면서 주제를 추출하였다.

(5) 연구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s)

연구텍스트 구성하기 단계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목소리(voice), 서명(signature), 독자(audience)를 고려하여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분석과 글쓰기 과정이 병행되었는데,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 모두를 긴밀하게 맞물려서 두 단계를 반복하며 연구텍스트를 구성 및 보완하였으며, 근거이론의 3단계 코딩 절차도 병행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조화하였다.

4.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의 생성 과정은 어떠한가?
- 사회적경제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은 어떠한가?
- 형성 과정으로 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5.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2014년 광사넷 창립 전의 초기 활동가와 창립 후 참여한 14명의 사회적경제 기업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광사넷 참여 연도별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알기 위해 광사넷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명으로 작성하였다.

[표Ⅲ-1] 연구참여자 명단

연번	연구참여자	대표로 있는 조직의 유형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참여 연도
1	조희락	시민사회단체	2014
2	지현	사회적기업	2014
3	유채원	마을기업	2014
4	김현학	예비사회적기업	2014

5	오수지	사회적협동조합	2016
6	이설아	사회적기업	2016
7	박현지	협동조합	2017
8	오정빈	예비사회적기업	2017
9	이동열	협동조합	2019
10	인철	협동조합	2020
11	정유라	협동조합	2020
12	김민지	협동조합	2022
13	정다운	광사넷 부설 연구소	2023
14	공은영	예비사회적기업	2023

6. 연구자의 위치성과 역할

(1) 연구자의 위치성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경제¹³⁾의 경제의 재사회화-폴라니, 부르니, 장원봉이 주장한 맥락에서의 경제에 호혜의 관계를 넣는-의 기능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개념을 분류하여, 기능적 개념을 추출하여 그 관점으로 내러티브를 해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분류와 기능적인 관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2] 사회적 자본의 분류와 기능적 관점

13) 본 연구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고찰하였듯이 사회적경제는 그 주체(조직)와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학자	정의	기능적인 관점
Bourdieu	네트워크 혹은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집단의 구성원으로 획득되는 자원의 총합	자원적 기능
Colman	개인들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이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 요소	개인들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
Putnam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조직의 특징이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
Fukuyama	공동체의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나 규범의 공유이며, 상호신뢰의 정도이며 그 구성요소는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이다.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나 규범의 공유 기능
Woolcock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인과 집단의 목표 달성의 기능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에서의 재사회화의 기능으로 본 사회적 자본의 재정의로 ‘경제의 재사회화’ 목표¹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¹⁵⁾ 참여,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요소¹⁶⁾ 다” 라고 조작적인 정의를 하여 내러티브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

(2) 연구자의 역할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순한 관찰자(observer)가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공동서사자(co-author)로서의 위치를 가진다. 연구자는 자신의 해석이 참여자의 이야기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 과정 전반에서 반성적 성찰을 지속해야 한다(Clandinin,

14) Woolcock의 개인과 집단의 목표 달성의 기능적 관점과 장원봉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혼용하였다.

15) Colman의 개인들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적 관점을 차용하였다.

16) Putnam과 Fukuyama의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 요소를 차용하였다.

2013).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자료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특히 연구자는 광진주민연대의 초기 활동가로 광사넷 조직의 창립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만나며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를 촉진하고, 현재에도 그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보았으며, 14명의 연구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맥락의 왜곡이나 자기 가치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5년간 활동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한 『당사자, 한국의 고용복지를 말한다 나도 일하고 싶다』(김정원 외, 2014)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전문성은 연구 과정의 엄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자료 활용 범위, 익명성 보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심층면담 전에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관하였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호하였다.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연구 목적 설명 및 동의: 연구 참여 동의서 서명 전, 본 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예상되는 결과 및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익명성 보장: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연구 결과 발표 시에는 모든 개인 및 기관 정보를 가명과 익명 처리하여 보호하였다.
- 연구 참여 거부 및 중단 권리: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 도중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2024년 생명윤리 강의를 수강하고, 이후 연구 개시 전 심의위원회의 정식 인가(SKHU-2408-01)를 받아 모든 연구 절차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IV.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경험 분석

1. 연구참여자 내러티브 범주화

내러티브를 범주화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IV-1] 연구참여자 내러티브 범주화

1차 범주	2차 범주	3차 범주
처음에는 이제 단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냥 그냥 돌아다니셨는데 그때...중략...그냥 되게 느슨하게 들렸거든요.	호의의 시작	
그런 어떤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 이런 거는 이호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호의의 시작과 배려로의 전환
섬기고 헌신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배려로의 전환	
이호님을 따라서 뭔가 신뢰해서 같이 하는 거다		
상당히 수용성을 인정하는		
온전히 그를 환대하고, 그냥 인간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는, 그건 그냥 강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만나고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계기는 딱 그거였습니다		
그냥 권유로 인해서 가입을 했고, 사실 동기는 없었어요		
거기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나도 거기에 일환인가 보다	참여 생성	참여 생성과 반복된 상호작용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가고 우리가 그런 지원받으게 있으니까, 사실 의무와 의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뭉치가 구르고 구르면서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게 이제 굉장히 모범적이나 교육적이나 제가 배움이 있었죠	참여 인상
편하고 좋아서 친해졌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전문적인 회의문화가 편하지 않았다	
참석하면서 사람들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또 이 행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경영 활동하는 거를 가깝게 본...중략...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반복된 상호작용
기업 대표님들 운영하시는 거 좀 배울 것들이 좀 있었	고
친해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나면서 친해지면서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이제 친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긴다	
편안하게 이 부탁을 받아주시구나, 해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신뢰가 돼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죠. 저게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신뢰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신뢰, 호혜관계 형성과 연스러운 협력
뭘 믿고 이렇게 계속 나를 도와줄까, 의문도 많이 갔어요.	신뢰의 생겨남
여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내가 몇 년을 같이 한 사람도 아닌데, 사실 그런 게 너무 되게 신뢰가 갑자기 확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부침을 넘어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생겼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다름이나 가치관의 다름이지, 같이 못할 정도의 네트워크 활동을 못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이 대표는 이게 필요하구 나, 서로의 니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호혜관계 형성
나도 그렇게 좀...중략...도움을 주거나, 연대하는 데 함 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신뢰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니까 소개도 받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 고	
MOU를 한다거나, 뭔가를 같이 한다고 뭐 해 주세요 이제 일을 하거나, 그분한테도 제가 다른 걸 소개하거 나 했을 때, 서로 이제 시너지 있게끔 같이 일했던 거 고	
사실 일을 서로 할 때 안 맞는, 결이 안 맞는 것도 있 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신뢰를 갖고, 또 일을 같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쳐요?, 협업이 잘 되 죠. 협업이 잘 돼요. 잘되지 않나요? 그리고 통하죠. 소 통이 잘 되죠	
신뢰가 사업하기에 도움이 돼요...중략...내가 혼자 생각 하고 막 이러면서 하면 힘든데, 이거 이거 해볼까 말까 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 릴 때는 나랑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 력 활동과 그 영향
그만큼 경쟁력이 생긴 거죠 저도, 어쨌든 믿고 맡겨주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도하게 되고 그렇죠. 시도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 고, 그런 사업을 해가면서 전문성이 조금씩 향상된다	
유무선 통신 장비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사무용품이 든 전자기기든 이런 걸 계속 활용을 했다는 거는 이만 큼 넓혀졌다는 거	
△△△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출 이익이 1년 동안 천 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공론장을 운영해서 내가 역	

량 강화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의 가치가 올라간 거나 마 찬가지예요	
공동체 연대 그런 게 있다는 게, 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면서	
한 가지 목표 목적 있을 경우에, 그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까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만 안 보 내고, 나만 가는 거 아니구나...중략...□□□□ 대표님 만났을 때도, 대표님이 진짜 서류를 다 본인이 써주시 더라고요	연대 의식 확대
전반적인 참여하는 인원들의 마음이, 그런 걸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8 대 2 정도, 8이 굉장히 연대성과 공동체성과 협동의 의지가 있고 2가 반대의 이기적인 성향이 있으면, 2가 이게 기를 못 펴는 거죠	
누가 얘기하든지 그 얘기를 다 수렴하고, 해 주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적인 거 그걸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그 규범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 은 것 같고	연대 의식 확 대와 규범형 성
사업이라는 게 논의해서 기획하고, 이걸 실행하고 평가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다 신뢰가 필요한 과정이라 고 생각해요. 논의하는 기획하면서 이걸 하자 하면, 이 행할 때 다 하고, 그 평가회의까지도 서로 신뢰 신뢰를 해야, 평가도 정확하게 하죠. 막 믿지 않으면은 부정적 인 평가를 안 하려고 하고 막 좋은 말만 하고 이럴 수 도 있잖아요.	규범 형성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지 않더라고, 그거를 개인의 탓으 로 돌리지 않고,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사업을 하고, 네트워킹 하다 보니까, 더 세밀 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실질적인 규범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쌓인 다음에는...중략...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	

계가 돼서, 규범을 만드는 데 되게 쉬워졌다	
지역이 멀어 가지고 당장 결심을 못하다가, 이제 또 나 도, 지금 생각하면 참 큰 결심을 한 거죠. 굉장히 2시간 짜이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도 옮기면서, 지역으 로 와보겠다고 왔던 거고	
운동회 (개최가)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역할도 부여되고 만나는 계기도 되고 ‘하이 대표님 대표님네 거기 저 집 정리하세요. 그 대표님네 가게 정리하셔야 죠.’	
■ ■ ■ ■ 를 안내를 해 주시면서, 저한테 들어올 의사가 있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같 이 함께 될 건지를 알려주셨는데	관계와 네트 워크의 확장
먹거리 네트워크하고도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되고, 그 러면서 이제 이쪽 광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안으로 저 희가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에 창업 지 원을 받으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그 법인 이 설립되면서, 이제 광사넷으로도 사업체로 들어가 기 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육성 사업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육성 사업 에 들어가면서	
자주 모이니까 이런 형제애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내 고향 같은 곳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나의 형제 자매 그런 이웃과 같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녹여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숙돼 가는 것 같아요...중략...왜냐하면 내가 편안 해진다는 자체가 회피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 제 받아들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용인해가고 용납해 가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그게 저는 이제 사랑 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깊어지는 유대 신뢰와 네트 와 형제애, 그리 워크의 고도 고 성숙감 화
내가 뭔가 속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 기 쉬워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사람들은 자기를 드 러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신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리고 나를 드러냈는데 그게 용인되고 받아들여	

질 때, 엄청난 신뢰를 경험하는 거죠 나 혼자 할 때는 안 됐는데, 같이 뭘 해보니까 이런 일도 해내네! 이런 것도 가능하네! 이런 게 이제 경험되어 지나니까, 저도 성장하고 저의 역량도 이제 제가 노력하면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리는 기쁨이 되게 됐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 그게 있구나 경제적인 도움 플러스, 인간적인 성장까지도 이 안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공동체죠 사업적인 개별적인 어떤 사업의 목표라기보다는 비전인 것 같아요. 광사넷에 어떤 집을, 우리는 광사넷에서 어떤 집,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 가겠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들도 종종 공유는 됐잖아요 광사넷 같은 조직은 어쨌든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돼서, 그래도 그 좋은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게, 누구를 낙오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딱 그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이익과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성공한 경우가 아닐까 훨씬 더 깊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그 물질이 막 엉킨 것처럼 더 복잡하게,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노후에 죽을 때까지 같이 해도 되는 정도의 관계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만 명 소비자, 난 그게 그야말로 경제와 신뢰를 다 삼는 엄청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 신뢰의 힘을 더 돈독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이제 우리 나름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	---

추모식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교육생들은 그냥 교육을 들으러 왔고, 우리가 교육했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더 신경 써주게 되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더 연결 그렇게

기존의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눈을 돌려서 십일조 하듯이 품앗이 하듯이, 차세대로 신뢰가 전수되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제자에게 하듯이, 남겨놓는 보리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대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을 더 찾아가지고, 신뢰의 땅을 더 넓히는 거예요



2.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

1) 호의의 시작과 배려로의 전환

Putnam(1993)의 「번영하는 공동체」 첫 시작은 옥수수밭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데이비드 흄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당신의 옥수수는 오늘 여물고 내 것은 내일 여물 것이다. 만약 내가 오늘 당신의 추수를 위해 함께 일하고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다면 이는 우리 둘에게 모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호의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신 역시 나에게 아무런 호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보상에 대한 기대는 나를 실망시킬 것이며, 보상은 나로 하여금 헛되이 당신의 호의에 매달리게 한다는 것도 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며, 당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모두 상호신뢰와 보증의 결핍으로 인해 수확물을 잃게 될 것이다.”

(Putnam, 1993, p.1)

옥수수밭 농부의 이야기는 비극적이다. 상호신뢰와 보증의 결핍은 어느 장소에나 있는 듯 보인다. 그러면 상호신뢰와 보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광사넷에 참여하여 사회적 자본을 생성한 그 시작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1) 호의의 시작

연구참여자들은 활동가의 호의를 경험하며 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초기 활동가의 호의의 시작은 신뢰가 생성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Putnam(1993)은 호의와 상호작용을 사회적 자본 형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그는 호의가 일방적인 시혜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작용될 때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된다고 보았다. 호의는 일방적 베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응답이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현지는 2014년 광사넷이 창립 후 참여한 기업대표이다. 박현지는 활동가가 찾아와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한다.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편하게 친해졌다고 구술한다.

“처음에는 이제 단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중략...이제 단장님을 처음 만났었고, 그때 그때는 단장님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때도 역시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제 편하게 친했었고” (박현지).

유채원은 광사넷 초기 멤버로 활동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활동가는 그냥 돌아다녔다고 표현하며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냥 그냥 돌아다니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 뭐 딱히 뭘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이제 두런두런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거든...중략...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했으면, 나 같은 사람 부담스러워서 그 말았을 텐데, 그냥 되게 느슨하게 들렸거든요” (유채원).

연구참여자들은 활동가와 만남이 명확한 이해관계나 공식적 목적 없는 호

의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부담 없이 지속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활동했던 활동가의 호의에 공감하였으며, 호의로부터 시작된 만남은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박현지는 광사넷 설립 약 4년 후 지인의 제안으로 처음 만남을 가졌으며, "그때는 어떤 조직인지도 잘 몰랐지만 편하고 친해졌다"고 회상하였다. 유채원 역시 "그냥 돌아다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모습이 기억난다"라며, 지나치게 적극적인 접근보다 오히려 느슨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2) 배려로의 전환

Offer는 ‘배려’가 효과적인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진정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한 호의는 수혜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고 일관되며, 개인적 이해득실을 초월할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한 ‘배려’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인정’이 이루어질 때, 수혜자는 ‘공감(sympathy)’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의 기초가 형성된다.

오수지는 활동가의 호의에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다고 구술한다.

“그런 어떤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 이런 거는 이호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수지).

김민지는 활동가의 호의는 이타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구술한다.

“섬기고 헌신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라도 좀 남

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호라는 사람으로 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크든 저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저런 모습도 있네” (김민지).

정다운은 2023년부터 광사넷을 알게 되었다. 정다운은 인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다운은 사회적경제 기업대표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그들이 이호를 신뢰하고 있다 구술한다.

“이호님을 믿거나, 아니면 또 한 분은 그 돌아가신 주민연대 대표님 고정우대표님, 네! 그분도 엄청 믿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코발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가치 지향적이지 않지만, 단장님을 따라서 뭔가 신뢰해서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다운)

조희락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람이다. 그는 활동가가 수용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품어 안는 태도로 다수의 사람을 주변화시키지 않고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리더십이,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중략... 그래서 이제 느끼는 그 리더십의 특징이랄까, 그거는 어떤 거였냐 하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용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중략... 그 다른 이견이 있으면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견에 대해서 일단은 동등한 위치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해서 옳고 그름 내지는 타협점을 만들어 내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리더십이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다 보면 주도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어떤 이견이 돌출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더 주변화될 수 있

고, 그러면 이제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어떤 리더십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비교적 바람직하게 이제 그 이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풀어안은 그런 태도가 상당히 다수가 주변화되지 않고 같이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조희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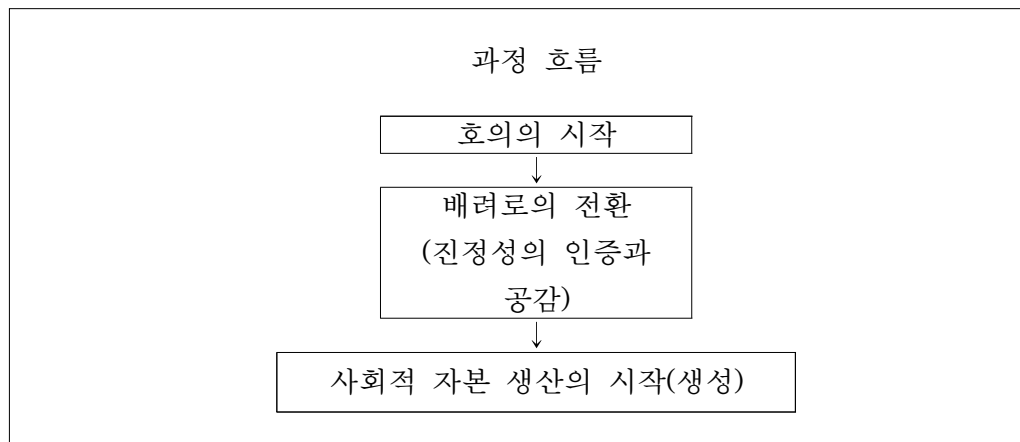
김민지는 친밀감하고는 다르게 환대와 수용성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강렬한 느낌이라고 하었다고 하였다.

“그거는 친밀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본질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친밀감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돼서 뱉어지는 거라면,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온전히 그를 환대하고, 그냥 인간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는, 그 건 그냥 강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김민지).

연구참여자들은 광진주민연대와 초기 활동가가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보여준 모습에 진정성의 인증과 공감을 가지게 되었다. Offer는 ‘배려’가 효과적인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진정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단순한 호의는 수혜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고 일관되며, 개인적 이해득실을 초월할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한 ‘배려’로 전환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인정’이 이루어질 때, 수혜자는 ‘공감(sympathy)’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호의를 배려로 인지하게 되면서, 진정한 호의는 광사넷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게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1



2) 참여 생성과 반복된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호의에 대한 배려의 전환은 참여를 생성하였다. 참여동기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 추구가 아니었다. 지인의 권유나 제안에 의한 것으로 호의와 배려의 공감이 참여를 이끌어낸 배경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각각의 연구참여자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였고, 다른 이들은 비공식적 모임이나 공동 활동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였다.

(1) 참여 생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볼 때, 네트워크에의 참여는 단순히 조직에 가입하거나 형식적으로 소속되는 행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하나인 참여가 생성되는 사회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오정빈은 광사넷의 가입은 단순히 소개와 만남이었다고 말한다.

“이호님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볼래, 해서 만나고,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계기는 딱 그거였습니다” (오정빈).

박현지는 동기는 사실 없었으며 권유로 인해 가입하였다고 한다.

“그냥 권유로 인해서 가입을 했고, 사실 동기는 없었어요” (박현지).

이설아는 광사넷의 가입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곳으로 추천받아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광진구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활발하다 활발하고, 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설아).

유채원은 적극적인 목적이나 동의는 없었지만,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넓은 동조로 참여하게 된다.

“넓은 가치관에 대한 거에 저도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막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나도 거기에 일환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그때 어렴풋이 사회적경제 이런 걸 좀 알죠, 아주 어렴풋이” (유채원).

김현학은 사회적기업의 의무에 의해 참여하였다고 한다.

“저희는 광진구 지역에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당시에는 광진구도 처음이었었고, 광진구에 아는 사람도 없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육성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참여한 거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간 것도... 그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제 좀 머릿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가고 우리가 그런 지원받은 게 있으니까, 사실 의무와 의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 네트워크에도 들어간 게 있었어요” (김현학)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광사넷에의 참여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경로와 동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정빈은 “소개로 만나보고 가입했다” 라고 하였으며, 박현지는 “그냥 권유로 가입했으며 동기는 없었다” 라고 말하였고, 이설아는 “활발하게 잘하는 네트워크로 추천받았다” 라며 타인의 권유에 의한 참여를 언급하였다. 명확한 목적보다는 호의의 권유와 관계의 힘이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유채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대한 느슨한 동조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나도 그 일환인가 보다” 라고 회상하며,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개념보다는 ‘좋은 일에 동참한다’ 라는 가치적 공감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현학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라고 구술하여, 제도적 요인 또한 참여의 한 축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을 참여 행위는 호의의 시작이 배려로 인정되면서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여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의에 응답하는 사회적 자본의 생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2) 참여 인상

연구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받은 인상은 좋아함, 교육적임, 눈덩이처럼 함께하는 상상, 체계적인, 편하고, 친해짐이다. 반면 전문적인 회

의가 불편하다는 인상도 경험하게 된다. 이설아는 협동조합의 구조에 대해 마음에 들어 했으며 서로서로 점점 더 함께 할 수 있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인상을 갖게 된다. 박현지는 참여하는 기업 대표님들이 모범적이며 교육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기도 하며, 이설아는 네트워크의 절차와 결정 방식의 체계가 존재하며, 분과를 통해 각각의 영역을 맡아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인상을 갖게 된다. 박현지는 편한 느낌이 든 반면 오정빈은 전문적인 회의문화가 편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설아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함께하는 협동조합의 구조가 좋았다고 한다. 서로서로 같이 갈 수 있어서 눈덩이가 조그만 뭉치가 구르고 구르면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하면서도, 물론 뭐 조그맣게 이렇게 빠격 거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뭉치가 구르고 구르면서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구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설아).

박현지는 광사넷에 참여하는 기업대표들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교육적이라 배움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편하고 친해져서 광사넷에 계속 참여하였다고 한다.

“대표님들을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모범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제가 배움이 있었죠.” (박현지).

“편하고 좋아서 친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왔던 거 같습니다” (박현지).

이설아는 절차로 인한 결정 과정과 분과로 인한 분업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과들이 있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분과가 많지 않았지만, 그런 분과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할 영역들을 이렇게 좀 맡아서” (이설아).

반면 오정빈은 전문적인 회의문화가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전문적인 회의문화가 편하지 않았다!” (오정빈)

연구참여자들은 네트워크의 참여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좋아짐’, ‘교육적임’, ‘눈덩이처럼 함께 커져감’, ‘체계적임’, ‘편안함’, ‘친밀해짐’ 등으로 묘사하며, 참여 과정에서 관계적 변화를 체감하였다. 이설아는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과 분과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로 작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눈덩이 효과’를 경험했다고 회상하였다. 박현지는 네트워크 내 기업대표들의 행동을 “모범적이고 교육적인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오정빈은 초기 참여 과정에서 “전문적 회의 문화가 낯설고 다소 불편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에 새로 편입된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낯섬은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완화되어 친밀감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누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들이 진술한 ‘편안함’, ‘배움’, ‘함께 성장하는 기대감’ 등은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초기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3) 반복된 상호작용

연구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점차 구성원들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쌓아갔다. 오수지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지속해서 참석하여,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회의의 언어와 논의의 절차가 점차 익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설아는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소 거리감을 느꼈으나, 반복적인 만남과 공동 교육 및 행사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워졌다고 한다. 박현지는 네트워크 내 다른 여성기업 대표들의 활동에 동기 부여를 받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오정빈은 관계의 친밀감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언급하였다.

오수지는 매달 한 번 진행되는 구성원 전체 회의에 꾸준히 참석했다고 구술한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다가, 차츰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광사넷 모임에 참관을 했는데,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했잖아요. 가서 매달 나간 거예요. 나가서 듣는데 하여튼 몇 번을 나갔는데 못 알아듣다, 나중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언어가,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사넷에) 들어갔을걸요” (오수지).

이설아도 마찬가지로 매달 한 번 진행하는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데면데면했지만, 차츰 사람들의 알게 되고 다양한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저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회의를 하실 때, 그때 참여를 했고...중략...저도 좀 데면데면했지만, 이렇게 원래 참석하면서 사람들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또 이 행사들이 있어서” (이설아).

박현지는 다른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활동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기업 운영에 배움이 있었으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그분들과 함께함으로써 부침과 넘어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 대표님들과 가깝게, 그들의 그들이 경영 활동하는 거를 가깝게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박현지).

“기업 대표님들 운영하시는 거 좀 배울 것들이 좀 있었고, 좀 사업을 확장하려면 그분하고 함께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부침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침을 넘어서니까(박현지)”

오정빈은 자신의 기업은 운영하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막상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현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중략...그런 회의라든지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았고요” (오정빈).

연구참여자들은 네트워크에 꾸준히 참여하며 구성원들과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오수지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지속해서 참석하여,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회의의 언어와 논의의 절차를 점차 익숙하게 되었고 이설아는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소 거리감을 느꼈으나, 반복적인 만남으로 자연스러워졌다고 한다. 박현지는 네트워크 내 다른 여성기업 대표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오정빈은 초기 참여 과정에서 느꼈던 낯섬은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완화되었고, 결국 친밀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관계의 친밀감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야 하며, 이러한 누적적 과정을 통해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먼대면 접촉의 빈도와 상호작용의 질이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편안함', '배움', '함께 성장하는 기대감' 등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누적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초기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눈덩이처럼 함께 커짐'이라는 표현은 Granovetter(1985)가 제시한 사회적 관계의 축적적 성격(cumulative nature)과 부합하며, 초기의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되는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생겨나는 신뢰, 호혜 관계 형성과 자연스러운 협력

Newton(1997)은 그의 저서 “Social Capital and Democracy,”의 첫 문장에 존 로크(John Locke)의 표현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참여한 사람들은 면식과 우정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다. Coleman(1988)은 신뢰를 구성

원 간 상호 의무와 기대가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보았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네트워크에 참여와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면식과 우정이 쌓이며 서로 간의 신뢰가 생겨나게 된다. 생겨난 신뢰는 더욱 친밀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며, 어려운 과정을 넘어 더욱 심화된다. 더불어 신뢰는 서로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업적 호혜를 만들어 간다.

(1) 신뢰의 생겨남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과 과정으로 신뢰가 생겨난다고 구술한다. 오정빈은 친해지는 과정에서 신뢰가 발생했으며, 이동열은 이전부터 서로 도와 주는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깨달으며, 박현지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신뢰를 만들어 갔다고 한다.

오정빈은 결이 맞지 않는 대표들과 만났지만,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고 신뢰 발생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만나는 횟수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더 알아가며, 편안해지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부탁도 편하게 하며,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이 맞는 대표님들하고 하다 보니, 만나면서 친해지면서 마음을 열었다.” (오정빈).

“신뢰를 형성한 거는, 모든 회원사를 다 알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횟수가 갈수록 회원사들한테 더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이제 친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긴다!...중략...편해져야지 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탁도 쉬워지고 잘 모르는데,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오정빈)

“센터에 들어갔을 때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센터에 들어가니까 물어보기도 편하고, 얼굴을 자주 보니까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럴까, 좀 친분이 생기면서 부탁을 드려도 이분은 편안하게 이 부탁을 받아주시구나! 해주시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신뢰가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광진구에 활동하고 그냥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정빈)

이동열은 본인이 참여하기 전부터 초기 구성원들은 매월 열리는 회의에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지속해서 만들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이 서로 도와주는 발판을 제공했다고 하며 이들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광사넷 운영위원회가 매월 열리는 상태에 또 회의 내용으로도...중략... 다른 업체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죠. 저게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신뢰하게 되면서” (이동열).

“뭘 믿고 이렇게 계속 나를 도와줄까 의문도 많이 갔어요, 진짜 근데 이 조직이란 자체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커왔기에 그냥 그렇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커갈 수 있는 발판을 주위에서 만들어준다는 걸 보고 나서” (이동열).

공은영은 본인의 기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과 소개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사업을 위한 서류를 도와주는 것에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김민지대표님이 어떻게 해서든 △△△△△△¹⁷⁾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17) 기업의 명칭을 △△△△△△기호로 표현하였다.

마음을 가져주는 거, 여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내가 몇 년을 같이 한 사람도 아닌데, 사실 그런 게 너무 되게 신뢰가 갑자기 확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중략...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 18)갈 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얘기해 주시잖아요. 서스름 없이 그런 거 할 때 이제 되게 신뢰가 가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만 안 보내고, 나만 가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 대표님 만났을 때도 대표님이 진짜 서류를 다 본인이 써주시더라고요.” (공은영)

박현지는 사업을 함께하면서 부침이 있었으나, 이를 넘어서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함께 사업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좀 사업을 확장하려면 그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부침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침을 넘어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생겼고” (박현지).

오정빈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편안함의 늪’, 이동열의 ‘지속적 호혜의 인식’, 공은영과 박현지의 ‘공동의 과업 수행을 통한 신뢰 형성’은 모두 신뢰의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친해지고 편해지면서 마음이 열려서 신뢰가 생겨나거나, 호혜 관계가 지속해 왔음을 알아가며 신뢰가 생기거나, 함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Coleman(1988)의 신뢰를 구성원 간 상호의무와 기대가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산임을 방증하고 있다.

18) 또 다른 기업의 명칭을 □□□□기호로 표현하였다.

(2) 호혜 관계 형성

호혜성이란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의 개념은 내가 오늘 돕지만, 다른 누군가가 특정된 시간이 아닌 미래에서 나를 돕는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이다(Putnam, 2000).

호혜적 교환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특정된 시기가 아닌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거래만으로 내가 받은 도움이 되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채’는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유석춘, 2002).

연구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생긴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일반적인 호혜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 박현지는 점점 더 깊어지며 지속되는 신뢰를 말하며, 오정빈은 서로의 필요를 느끼며 사업을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신뢰의 사업적 성격을 말하며, 이동열은 신뢰를 통해 나도 호혜하며 연대하고 싶다는 지향을 이야기한다.

박현지는 점점 관계가 신뢰가 쌓이고, 상대의 틀린 부분을 인정하며, 틀린 것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신뢰가 더욱 깊어지며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오히려 잘 모르니까, 대표님의 그냥 걸으러 우리 커피 마시고 회의하고 할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사업을 하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전에 좋았던 관계가 좀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죠. 근데 그것들을 잘 서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점점점점 관계가 신뢰도 쌓이고,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다른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전에는 약간 저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런 태도나 저런 자세나 저렇게 자기 기업만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 점점 좀 다른 거구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다름이나 가치관의 다름이지, 같이 못할 정도의 네트워크 활동을 못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박현지).

“사실 (신뢰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깨지지 않는 한 그 네트워크가 깨지지 않는 한, 또 불만이 쌓여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신뢰는 쪽 가는 것 같아요...중략...신뢰는 점점 쌓이죠. 그래서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그러니까 욱하면서 만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현지).

오정빈은 서로의 필요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이야기하는 신뢰 성격을 느끼게 된다.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이 대표는 이게 필요하구나! 서로의 니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편안하게...중략...사회적 네트워크의 모임을 갔어, 갔는데 자연스럽게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뭐 회의하고 전체 회의로 온 게 아니고, 여기 왔는데 그냥 디너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표님 요즘 어떠세요? 하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뭔가 꺼리가 나오는 거죠.” (오정빈).

이동열은 서로 도와주고 주는 모습을 보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구술한다.

“나도 다이음도, 그쪽에 무언가를 하나 좀 더 하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내가 부탁하는 거를 들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호혜 해주고 연대해 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뢰가 생기고, 나도 그렇게 좀...중략...도움을 주거나 연대하는 데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동열).

연구참여자들은 신뢰를 점차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발전시켰다. 박현지는 이러한 변화를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지속되는 신뢰로 발전했다” 라고 표현한다. 오정빈은 “서로의 필요를 느끼며 사업 이야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관계” 로 발전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동열은 “신뢰를 통해 나도 호혜 하며 연대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신뢰가 개별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속적인 신뢰가 ‘일반화된 호혜성’ 을 형성해 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신뢰(trust)는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이해된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관계망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얻는 실제적·잠재적 자원” 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계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인정과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뢰의 생성은 일반화된 호혜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문이다. 신뢰가 없을 때 호혜는 일방적 시혜로 끝나지만, 신뢰가 있을 때 호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관계적 약속’ 이 된다. 신뢰는 호혜 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기대를 형성하며, 협력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게 한다.

(3) 자연스러운 협력 활동과 그 영향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일반화된 호혜적 관계를 통해 자연스러운 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협력 활동은 사업의 전문성과 확장에 도움을 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러운 협력 활동을 하게 된다. 오정빈은 자연스러우니 소개도 받고 소개도 하게 되며, 공동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시너지가 났다고 한다. 오수지도 신뢰로 인해 이해관계가 조정되며 협업이 부드럽게

진행된다고 한다. 더욱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정빈은 자연스러워지면서 소개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며, 기업 간 MOU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민학교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시너지 있게 일했으며, 일할 때 결이 안 맞더라도 신뢰가 있기에 일을 같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러우니까 소개도 받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오정빈)

“MOU를 한다거나 뭔가를 같이 한다고 뭐 해 주세요, 부탁을 했을 때” (오정빈)

“주거돌봄협동조합도 그렇고, 그분하고는 주민학교 같이 진행하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일을 하거나 그분한테도 제가 다른 걸 소개하거나 했을 때 서로 이제 시너지 있게끔 같이 일했던 거고, 그래서 주거 편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잘 자리를 잡은 건데, 이제 교육 분과도 이렇게 과정이 있었잖아요.” (오정빈)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사실 일을 서로 할 때, 안 맞는, 결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신뢰를 갖고, 또 일을 같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오정빈)

오수지는 신뢰가 협업이 잘되게 한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이해를 추구할 때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협업하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신뢰로 인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협업할 수 있기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 질문 : 그러면 그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쳐요?”

연구참여자 답변 : 협업이 잘 되죠. 협업이 잘 돼요. 잘 되지 않나요?!. 그리고 통하죠. 소통이 잘 되죠. 내가 뭐 어 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신뢰가 안 쌓인 상태면 그리고 다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실 나의 이해를, 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되죠. 소통과 협업이 잘 된다 이걸 확실한 것 같아요.” (오수지)

“신뢰가 사업 하기에 도움이 돼요. 도움 되죠! 도움 되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망설였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건 뭐냐면 나랑 함께할 수 있는 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하면 힘든데 이거 이거 해볼까 말까, 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나랑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수지)

이동열은 협력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 시 미숙한 점을 찾아 개선하게 된다고 한다. 믿고 맡겨주게 되면 미숙한 부분을 채워가며, 시도하다 보면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신뢰를 통해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기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업도 확장되었다고 한다.

“그 부분이 여태까지 순조롭게 다 해결이 돼 갖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뭔가를 요청했다가 거절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보다는 제가 이 일에 지금 아직 미숙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 그거를 더 계속 찾았어요.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되고 자꾸 해야 하니까요....중략...저도 4, 5년 전쯤에 가전기기를 대량으로 납품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5년 전에 시작하면서 그렇죠. 2019년도

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왔고, 했을 때 그때 약 한 반년 정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했을 경우 했었을 때, 제가 드린 견적은 그 회사에서 다른 타사에서 받은 견적보다 단가는 다 좋았어요. 낮았어요. 제일 쌌어요! 제품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생긴 거죠 저도, 어쨌든 믿고 맡겨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도하게 되고 그렇죠! 시도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이동열).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형성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사업을 해가면서 전문성이 조금씩 향상된다. 그래서 신뢰가 전문성 향상에도 ...중략... 정말이요! 신뢰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돼요.” (이동열)

“유무선 통신 장비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사무용품이든 전자기기든 이런 걸 계속 활용을 했다는 거는, 이만큼 넓혀졌다는 거” (이동열)

박현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출 이익이 1년 동안 일천만 원을 올렸으며, 역량 강화까지 평가하면 5천만 원의 가치를 올렸다고 구술한다.

“▲▲▲¹⁹⁾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출 이익이 1년 동안 천만 원이었어요. 만약에 공론장을 운영해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공론장을 운영해서 내가 역량 강화를 했기에 5천만 원의 가치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현지)

사회적 자본은 금전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속에서 축적되는 신뢰(Trust),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비물질적 자원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Bourdieu, 1986). 신뢰 및 규범이 상호작용과 협력 비용을 낮추며,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행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Putnam,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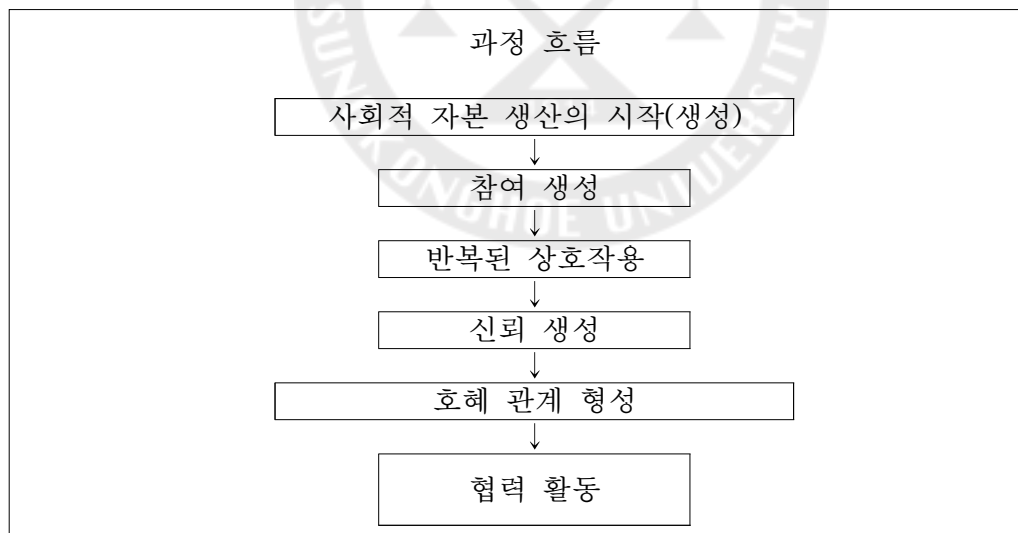
19) 기업의 명칭을 ▲▲▲기호로 표현하였다.

광사넷의 참여자들은 협력 활동으로 서로 도와가며 사업적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하였다. 협력의 과정에서 신뢰는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나타난 광사넷 참여자들의 협력 경험은 주로 각자의 생존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실질적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광사넷 전체라는 공동체적 이익보다는 개별 주체의 이익 추구라는 한계가 머물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뢰를 통한 협력 활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과 전문성, 사업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의 협력은 전체 네트워크의 공동체적 이익보다는, 개별 주체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형태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Ⅳ-2]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2



4) 연대 의식의 확대와 규범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협력을 시작하며 그 영향으로 서로 간의 연대성이 있음을 알아간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연대성을 지향하며, 네트워크 내에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차별 없이 민주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규범과 공동 책임의 규범, 꾸밈없고 정확한 사업평가, 개인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수수료의 규범을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규범은 연대 의식이 확대되어 가며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며 신뢰를 통해 규범을 쉽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구술한다.

(1) 연대 의식 확대

연구참여자들은 연대성이 있다고 느끼며, 그것을 지향하고 연대 의식이 이기성을 넘어서서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동열은 사람들이 자신을 왜 도와주는지 이유를 모르다가 전반적으로 공동체에 연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정유라는 전체적인 참여자들이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며, 박현지는 연대성 있는 전체의 80%가 이기성이 있는 20%를 제어하며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동열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연대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광사넷이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조직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뭘 믿고 지원할까?에 대한 어떤 생각, 뭘 믿고 지원할까?...중략... 해답은 없어요. 해답이 없다기보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그거는 이제 우선 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지나다 보니 이런 공동체 연대 그런 게 있다는 게 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졌죠.” (이동열)

“한 가지 목표 목적 있을 경우에, 그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까요” (이동열)

정유라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신뢰 관계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참여하는 인원들의 마음이 그런 걸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유라)

박현지는 연대성과 공동체성, 협동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전체 10 중 8을 차지하며 이기적인 성향의 2가 확산하지 못하게 하며 8이 더 확산되었다고 한다.

“가끔 불만을 막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또 다른 기업들은 동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기서 해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8 대 2 정도, 8이 굉장히 연대성과 공동체성과 협동의 의지가 있고 2가 반대의 이기적인 성향이 있으면, 2가 이게 기를 못 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또 협력하려고, 그러고 서로 도와주고 십시일반으로 시간 내고 바쁘신 분들인데 시간 내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지 못하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자기 개인 기업의 이익을 챙기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20% 10명 중에 2명 정도다 이랬을 때는 그게 이제 확산되지를 못하고, 80%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박현지)

연구참여자들은 신뢰가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참여 초기에는 개별의 사업적 필요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한다’라는 연대 의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동열은 처음에

는 자신이 다른 참여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구술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지탱하는 연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그의 내러티브는 네트워크 내에서 연대 의식을 인지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연대 의식의 인지와 확산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규범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유라는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외부에서 주어진 규율이나 명시된 규범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내면적 인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확산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참여하는 인원들의 마음이 그런 걸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언급하며,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박현지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연대 의식을 형성한 다수의 참여자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소수자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자연스럽게 제어한다고 구술한다. 그녀는 “연대성과 협동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20%의 이기적 성향을 제어하고 결국 연대성이 더 확산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녀의 설명은 연대 의식이 공동체 내부의 규범을 정착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Putnam(2000)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규범이 연대 의식을 영향으로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규범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규범의 내면화는 신뢰를 더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신뢰는 다시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는 사회적 자본이 호의에서 출발하여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연대 의식으로 발전하고 연대 의식은 규범을 만들어 가는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규범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규범을 형성해 나갔다. 공은영은 의견을 차별 없이 들어주는 규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공동의 사업에서 전체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규범이 있다고 구술한다. 정다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공동사업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신뢰 기반 없이는 곤란한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말만 하는 추상적인 평가가 된다고 말한다. 박현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차츰 규범들이 하나하나 생겼다고 말한다. 신뢰로 인해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규범도 쉽게 합의하게 되었다고 구술한다.

공은영은 의견을 똑같은 크기로 봐주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규범이 있다고 한다. 또한 공동의 사업의 성과의 책임은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닌 전체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규범이 있다고 말한다.

“다 똑같은 똑같은 의견을 받았을 때 다 똑같은 크기로 봐주시는 거, 그게 이제 리더의 의견이든 밑에 누가 얘기하든지 그 얘기를 다 수렴하고 해주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적인 거 그걸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그 규범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제일 수직이 되게 많은 단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얘기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공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들면 유통 분과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유통 사업부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미 돈도 다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출자금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게 이제 출자금을 하고 유통 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어그러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지 않

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누구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은 폐하고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유통사업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필요한 부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걸 왜 안 됐는지 안타깝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은영)

정다운은 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하고 그 이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신뢰 기반 없이는 어려운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말만 하는 추상적인 평가가 된다고 말한다.

“사업이라는 게 논의해서 기획하고 이걸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다 신뢰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논의하는 기획하면서 이걸 하자 하면, 이행할 때 다 하고 그 평가회의까지도 서로 신뢰 신뢰를 해야 평가도 정확하게 하죠. 막 믿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평가 안 하려고 하고, 막 좋은 말만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믿으면은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다음 사업을 기획할 때 이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죠...중략... 서로 오히려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때 더 좋게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랑 안 친한 사이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오래 갖고 싶으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좋게만 평가하면 사실 관심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정다운)

박현지는 초기 활동가가 시키는 데로 네트워크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고 세밀하지는 않지만, 규범들이 하나하나 생겨졌다고 말한다. 신뢰가 쌓인 다음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라는 규범은 쉽게 합의된다고 구술한다.

“초기에는 약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규범이라고 그 래가지고 약간 단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이 게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 그때는 주로 회의를 주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표님들도 경영을 하거나 이제 사회 활동은 많 이 했어도 조직 활동은 다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 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따라하는 정도, 그리고 그게 그렇게 디테일하 거나 아주 완벽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약간 엉성한 정도의 규범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같이 사업을 하고 네트워킹 하다 보니까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실질적인 규범들 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만들지는 못했어요. 항상 미루거나 만들지 못하거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거나 그 랐던 것 같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박현지)

“지금 우리 분과가 어려워 그래서 수수료를 올려야 돼. 이럴 때 초창기에 막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신뢰가 쌓인 다음에는 막 이렇게 막 돈 많이 내려고 하거나 이럴 때 얘기하기가 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 정도 쉽고, 그리고 이제는 혹시라도 이제 이해관계자들끼리 계산적이거나 이런 것 들도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그냥 내놓고 얘기를 해도, 그전에 막 섭섭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규범을 만드는 데 되게 쉬워졌 다. 초창기에는 좀 미숙해서도 못 만들고, 만들면 만들면서도 되게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박현지)

연구참여자들은 차별 없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규범과 공동 책임의 규범, 꾸밈없고 정확한 사업평가, 수수료 증액의 규범이 있다고 구술한다. 이 규 범은 연대 의식이 발전되며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며 신뢰가 있어 쉽게 합의 가 된다고 구술한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규범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폐쇄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폐쇄성은 구성원 간의 규범과 상호 의무를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어떤 사회집단이 지나치게 개방적일 경우, 규범의 형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Coleman의 관점을 적용해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규범 형성의 과정은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는 ‘폐쇄 구조’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라는 폐쇄된 구조에서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속에서 연대 의식의 확장으로 여러 구체적인 규범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럼 ‘광사넷이 폐쇄적인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 광사넷에 매년 끊임없이 회원가입이 되는 현상²⁰⁾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폐쇄성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연대 의식의 확장에서 나온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간의 연대성(connectedness)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점차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 의식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이 연대 의식의 확대가 규범 형성에 필요한 폐쇄성의 영향을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의 반복적 상호작용과 신뢰의 축적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외부로부터 일정 부분 닫힌 집단의 현상을 보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내부 구성원들의 긴밀성은 폐쇄성을 불러왔으며, 긴밀성이 규범 형성의 또 다른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ortes(1998)는 ‘제한된 연대’를 특정 사회집단이 공유한 경험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의무감과 상호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대는 집단 내부에서는 강한 응집력과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외부 집단과의 교류나 신뢰 형성을 제약하는 폐쇄성을

20) 2014년~2021년까지 매년 5~10개의 신규회원사가 가입되고 있다.

동반한다고 한다.

한편 Portes(1998)는 규범의 지나친 내면화로 인한 과잉 사회화(oversocialized)를 우려하고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과잉 사회화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규범을 만들어 갔다. 필요 때문에 규범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²¹⁾ 이로 보건대 외부적인 과잉으로 규범이 형성되기 보다는 연대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규범이 내면화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에서 관찰된 연대 의식의 확대와 규범의 형성은 Portes(1998)의 사회적 자본의 작동 논리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신뢰와 협력, 제한된 연대의 영향으로 공동체적 규범과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5)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장

연구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의 확대와 규범의 형성은 관계와 네트워크 확장을 가져왔다. 반면 연대 의식과 규범 형성의 시기와 관계 및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시기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것은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선형적이거나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적이고 순환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철은 2020년 광사넷의 교육과정 개발에 초청되면서 네트워크와는 처음 관계를 맺게 되었다.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연대 의식이 생기면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거주 지역에서 인근으로 이사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오정빈은 2024년 광사넷이 주관한 운동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대표들과 교류하며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확장하였다. 또한 김민지(2022년

21)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구술되지 않는 광사넷의 회원가입 심사 기준(2016), 윤리규정(2017), 교육 분과의 수수료 규정(2020)은 명문화되어 있다.

광사넷 참여)와 공은영(2023년 광사넷 참여)은 광사넷이 운영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하였다. 공은영도 광사넷이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장해 주었다고 회고하였다.

인철은 광사넷의 사회적 가치 교육과정 개발에 초청되어 관계를 맺게 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2시간 거리가 있었음에도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걸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한 연대와 공유는 지역 기반인데, 이 헬리콥터처럼 위에서 그냥 이제 작업을 한다고, 이 가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서, 지역과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마름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박현지가 광진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교육 과정 개발에 이제 초청을 했고, 거기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10여 명의 교육부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죠. 여기 조직은 뭔가 좀 다르구나.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중략... 지역이 멀어가지고 당장 결심을 못하다가, 이제 또 나도 지금 생각하면 참 큰 결심을 한 거죠. 굉장히 2시간 가까이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도 옮기면서 지역으로 와보겠다고 왔던 거고.” (인철)

오정빈은 광사넷 운동회를 통해서 다른 기업대표를 만날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다. 그 기회를 통해서 관계가 더해지고, 더해진 관계를 통해 본인 회사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구술한다.

“운동회 (개최가)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역할도 부여되고 만나는 계기도 되고,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저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와서, 쓸모없이 그 모임에 왔는데...중략...자발적으로 참여할 껌딱지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막 이설아님도 오고 뭐 뭐라도 해보자라고 막 했던

게, 그래야지 저도 그 대표님 만날 때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표를 만날 때 이유 없이 만날 수는 없거든요. ‘하이 대표님 대표님네 거기 저 집 정리할게요. 그 대표님네 가게 정리하셔야죠’.” (오정빈)

김민지는 광사넷의 먹거리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광사넷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광사넷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개인적인 활동이 이제는 기업영역의 관계로 확장되게 된다.

“‘먹거리 네트워크’하고도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광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안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에 창업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그 법인이 설립되면서 이제 광사넷으로도 사업체로 들어가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김민지)

공은영도 김민지와 마찬가지로 광사넷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광사넷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설립한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 해오던 중에 광사넷에 참여한 대표들과는 다르게 공은영은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하면서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공은영은 광사넷이 안내한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광사넷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가 확장되었다고 구술한다.

“내년에 육성 사업이 있으니까 육성 사업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육성 사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소속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육성 사업 창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성 사업 창업 과정으로 이제(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공은영)

“■■■■22)를 안내를 해 주시면서 저한테 들어올 의사가 있냐라고 말씀해 주시

22)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을 ■■■■기호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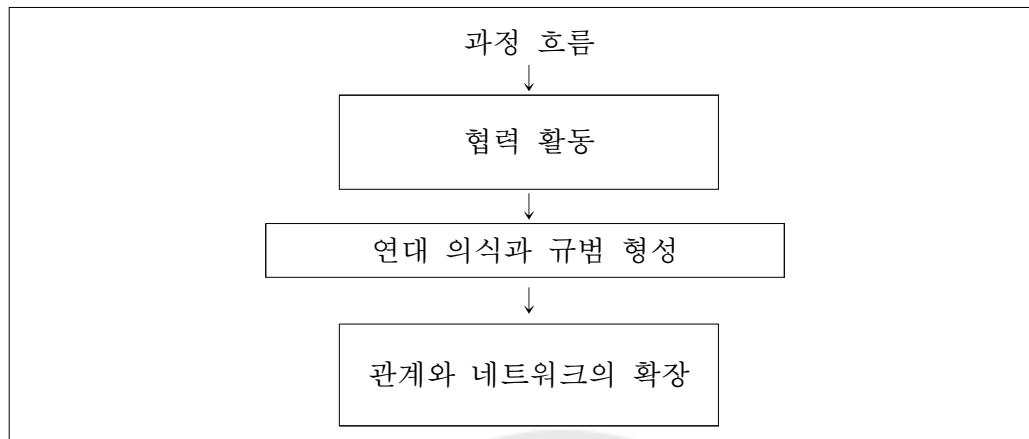
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 될 건지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그 5명 그러니까 저까지 5명이었는데 제가 두 분은 알고 있었어요. 박현지님이랑 김민지이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근데 나머지 이제 오수지님이랑 이제 ○○○ 본부장님 제가 몰랐는데, ■■■■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서 제가 되게 뭐랄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공은영)

이상의 구술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의 확대와 규범 형성을 통해 관계와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Putnam(2000)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내부의 신뢰와 규범을 강화하는 반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상이한 집단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와 자원이 교류되는 사회적 통로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계 확장은 Granovetter(1973)가 제시한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조정을 통해, 내부 결속의 강화와 외부 확장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광사넷의 구성원들은 내부적으로 연대 의식과 규범을 통해 강한 연대를 형성하였고, 더불어 약한 연대로 관계와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한 연대는 약한 연대를 자극하는 기제가 되었고, 약한 연대는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게 함으로 관계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또다시 강한 연대는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는 순환적인 상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Ⅳ-3]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3



6) 신뢰와 네트워크의 고도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네트워크는 더욱 고도화된다고 연구참여자들은 구술한다.

(1) 깊어지는 유대와 형제애, 그리고 성숙감(20260101)

연구참여자들은 더욱 유대와 신뢰가 깊어진다고 한다. 그 와 더불어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룬다고 구술한다. 인철은 깊은 유대로 형제애가 생긴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김민지는 광사넷의 구성원들을 먼 친척보다 가까운 형제자매와 같은 이웃이라고 구술한다. 더불어 신뢰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져 간다라고 구술한다. 정유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움이 되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신뢰가 더 깊어졌다고 구술한다. 박현지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인간의 성장까지도 이루어진다고 구술한다.

인철은 깊은 유대로 형제애가 생긴다고 구술한다. 자주 봐야 가족관계 같은

애정이 생긴다고 말한다.

“자주 모이니까 이런 형제애가 생기는 거죠. 자주 봐야 되는 거 자주 봐야 돼. 결국에는 가족이 애정이 생기는 건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라.” (인철).

김민지는 광사넷의 구성원들을 먼 친척보다 가까운 형제자매와 같은 이웃이라고 구술한다. 신뢰로 인해 혈육 관계처럼 되어진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과정을 사랑과 신뢰의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해져 간다라고 구술한다.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을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기쁨과 충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구술한다.

“김민지와 저와의, 제 삶을 나누던 이제 그런 어떤 관계-사회적 관계가 깊어진 결과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도 하게 되고, 봉사를 넘어서서 하나의 사업체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가게 된 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광사넷이라는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중략...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초의 신뢰 위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더 그냥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냥 여기는 내 고향 같은 곳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나의 형제자매 그런 이웃과 같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라는 그냥 소속감 신뢰, 이런 걸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김민지)

“근데 우리가 사회적 가치나 이렇게 연대를 하다 보면, 혈육은 아닌데 혈육 관계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많이 그런 부분에 갈등이나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녹여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숙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편안해진다는 자체가 회피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받아들

여저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용인해가고 용납해 가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그게 저는 이제 사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지)

“내가 여기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적어도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나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두려움이 많으면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안하면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신뢰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라, 안전하다 그리고 나의 불안이 낮아져야 이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속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기 쉬워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신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드러냈는데 그게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때 엄청난 신뢰를 경험하는 거죠.” (김민지)

“나 혼자 할 때는 안 됐는데 같이 뭘 해보니까 이런 일도 해내네! 이런 것도 가능하네! 이런 게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저도 성장하고 저의 역량도 이제 제가 노력하면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리는 기쁨이 되게 됐죠. 그래서 사실 뭐 보수도 없었고...중략... 오히려 이제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동이나 이런 걸 투자했어야 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했을 때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 충족되는 그런 거였죠.” (김민지)

정유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본 마음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신뢰가 더 깊어졌다고 구술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기본적인 마음 그게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때 그걸 보고, 되게 신뢰감을 많이 가졌어요.” (정유라)

박현지는 관계가 단순한 인간적 유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까지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구술하였다.

“이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경제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좀 더 끈끈해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가 돼서, 오히려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하고는 조금 더 효능이 더 있고 차별성이 더 있다. 경제적인 도움 플러스 인간적인 성장까지도 이 안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공동체죠.” (박현지)

인철은 “깊은 유대로 형제애가 생겼다” 라고 표현하였고, 김민지는 광사넷의 구성원을 “먼 친척보다 가까운 형제자매와 같은 이웃” 이라 서술하였다. 정유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신뢰가 깊어졌다” 라고 말하였고, 박현지는 “이런 관계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진다” 라고 구술하였다.

Newton(1997)은 사회적 자본을 집합적 신뢰 구조라고 주장한다. 이 집합적 신뢰 구조는 광사넷의 사례로 보건대 처음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공동체적 존재로 변화시키며, 개인적 욕구를 넘어선 집합적 신뢰 구조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호혜성을 내면화하도록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광사넷에 형성된 유대와 형제애, 인간으로의 성숙감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인의 내적 심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사넷 구성원들의 경험은 깊어지는 유대와 형제애와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이익 추구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조정(coordination)과 협력(cooperation)을 용이하게 한다.” 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가 더 효율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은 사회적 자본이 함께 일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유라는 “광사넷의 비전은 개별기업의 사업적 목표가 아니라, 광사넷이라는 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비전” 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다운은 “광사넷은 지역사회와 함께 좋은 가치를 만드는, 개별의 이익 추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진다” 라고 말하였으며, 공은영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정유라는 광사넷이 비전이라고 한다. 이 비전은 개별기업의 사업적 목표가 아니라 광사넷이라는 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비전이라고 구술한다.

“사업적인 개별적인 어떤 사업의 목표라기보다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그럼 광사넷이라는 어떤 집을, 우리는 광사넷에서 어떤 집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 가겠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들도 종종 공유는 됐잖아요.” (J 대표).

정다운은 광사넷은 사업 성공이라는 목표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좋은 가치를 만들고 알리는 다른 목표가 있다고 구술한다.

“사업 성공을 목표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사넷 같은 조직은 어쨌든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돼서 그래서 그 좋은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다운)

공은영은 광사넷은 특정 누구를 도와주거나,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다 잘되길 바라는 기조가 있다고 한다.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비전과 방향이 있다고 구술한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게 누구를 낙오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딱 그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통 사업부터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가니까, 누구의 이익을 더 챙겨주려는 게 아니라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다 아울러서 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은영)

인철은 경제적 이익과 인간관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광사넷은 경제적 이익과 인간관계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구술한다.

“경제 이익과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성공한 경우가 아닐까! 그런 경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인철)

박현지는 광사넷은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신뢰를 통해 더욱더 영킨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로 만났지만, 경제와 사업도 공유하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이다라고 구술한다.

“근데 우리의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신뢰는 이 관계의 사회적 자본은 같이 돈을 벌고, 그게 이제 어떤 기업에 돈을 벌어서 내가 나눠주고 이렇게 월급 주고 이런 거 하고 좀 다르고, 같이 사업도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같이 그냥 다 보고 내가 가진 역량 다 오픈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다 오픈해서 서로 나누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깊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그 물질이 막 엉킨 것처럼 더 복잡하게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노후에 죽을 때까지 같이 해도 되는 정도의 관계다. 그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족보다도 오히려 있죠.” (박현지)

이러한 구술 내용은 Putnam이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석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로 확장된다. 광사넷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영역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심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박현지의 “사회적인 관계로 만났지만, 경제와 사업도 공유하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관계”라는 구술은, 사회적 자본이 단순한 사회적 신뢰를 넘어 경제적 관계까지 포괄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Putnam이 말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다고 하는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광사넷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공동의 비전과 집합적 이익 추구로 구체화하는지 볼 수 있다. 이는 개인과 조직 간 협력이 그 범위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광사넷의 경험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신뢰가 협력 구조로 발전하며,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중 하나인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기여’를 가능케 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공동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오스트롬(1990)의 공공자원 관리 연구는 목초지나 물 공급과 같은 공공재의 관리가 일부 지역에서 성공하고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 이유는 해당 공동체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철은 “광사넷이 경제와 신뢰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신뢰 위에 경제를 쌓아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겨내는 연대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고 구술하였다. 정유라 역시 “쌓아온 개인적인 신뢰가 거래관계로 이어지는 사업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으며, 공은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관계가 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라고 진술하였다.

인철은 광사넷이 경제와 신뢰로 이루어진 만 명 소비자를 만드는 모멘텀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신뢰 위에 경제를 쌓아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겨내는 연대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구술한다.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변곡점을 만들어, 변곡점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서 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만 명 소비자, 난 그게 그야말로 경제와 신뢰를 다 삼는 엄청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고.” (인철)

“신뢰가 그러니까 신뢰 위에 경제를 쌓고...중략...자본주의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 신뢰의 힘을 더 돈독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이제 우리 나름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정서적 연대의 뿌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불거리 문화 작업들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되는 게 있고.” (인철)

정유라도 쌓아온 개인적인 신뢰가 거래관계로 이어지는 사업 아이템이나 서비스- 예를 들면 장례식을 추모식 전환-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구술한다.

“신뢰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는 장례 서비스가

갖는 이제 한계라는 거죠...중략...추모식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구성을 해줘야 그런 부분이 상호 거래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네트워킹이나 개인적 신뢰가 쌓였던 게 거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이제 소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모식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죠.” (정유라)

공은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관계가 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구술한다.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이 가르쳐 주어 효과가 좋으며, 결국은 자신의 사업에 더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옛날에 이제 교육생들은 그냥 교육을 들으러 왔고 우리가 교육했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더 신경 써주게 되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더 연결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열었거든요. 그 열 열 때 우리가 마음가짐이 그냥 그 래 그냥 이거 하고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더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확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좋아요. 유튜브 채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피드백을 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유튜브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딱 문자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공은영)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을 보면 광사넷은 그들의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사넷 구성원들의 협력적 행위는 개별기업의 수익 창출을 넘어서는 공동의 경제적 발전으로 수렴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협력 활동은 거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적 합리성의 논리와는 달리, 신뢰와 호혜의 규범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

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도식화한 발전 단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공동의 경제발전의 기대는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차 소비와 생산기의 협력 활동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생존이 중심이었다면, 2차 소비와 생산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즉, 협력의 목적이 ‘나의 이익’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번영’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 차원으로 심화되면서 개인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로 쌓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차세대로 신뢰가 전수되길 기대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은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통해 세대 간 전수되어 인적자본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신뢰의 누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망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 지속된다고 한다.

광사넷의 사례는 사회적 자본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신뢰의 관계가 차세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김민지는 “기존의 신뢰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확산되고, 다음 세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인철은 “차세대 리더들에게 향한 신뢰망을 넓히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가치지향적 인물의 발굴과 포용의 중요성을 구술하였다.

김민지는 기존의 신뢰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필요와 도움이 되고, 다음 세대까지 확산되어야 한다고 구술한다. 더 환대하고 포용하며 새로 온 세대에게 신뢰를 확산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의 바램은 이제 기존의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눈을 돌려서 십일조 하듯이 품앗이 하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제자에게 하듯이 남겨놓는 보리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추수 씨 뿌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올인해서 지금 내 사업에다 머리 처박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지, 그들을 포용해야 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 중에 된 자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도태되고 뭔가 새로운 세대 이런 자연 이치가 되지 않겠어요.” (김민지)

인철은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을 더 찾아서 신뢰의 망을 더 넓히기를 기대한다.

“그런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을 더 찾아가시고 신뢰의 망을 더 넓히는 거예요. 저 외에도 여러 명 또 차세대 리더 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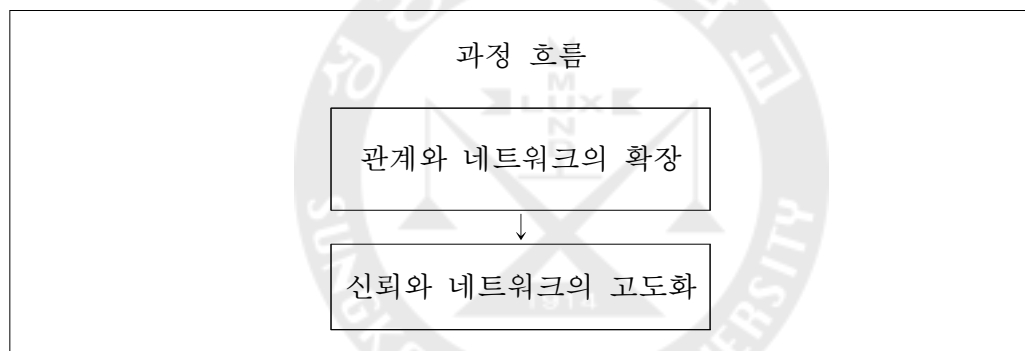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은 축적해 온 사회적 자본이 현재 구성원들에 머무르지 않고, 차세대 리더들에게로 전수되길 기대한다.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된 사회화 과정으로 세대 간에서 누적되고 전파된 유산이라고 하였다.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을 네트워크, 인정, 귀속의 장(field)에서 구조적으로 지속 및 재생산이 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Coleman(1988)도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성되며 다음 세대로 이전될 수 있는 구조적 자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사회적 자본의 차세대로의 전수에 대한 기대는 현재의 공동체가 미래의 공동체로 전해주는 ‘사회적 자본의 전송 구조(trust transmission structure)’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광사넷의 구성원들이 말하는 차세대로의 신뢰 확장은 세대교체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계승되는 재생산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4]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4



3.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분석 종합

본 절에서는 광사넷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생성되고, 심화되는지, 그 형성 과정을 종합하고자 한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경험을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장소성(place)의 세 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용하며, 특정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Connelly의 제안을 토대로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광사넷이라는 사회관계를 사회성으로 해석하였고, 광진 지역을 장소성으로 해석하였다.

추가하여 본 절의 종합하는 과정에서 Connelly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성을 추가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생성 이후에 소비와 생산이 선후의 과정이 아니라 중첩되고 교차하여, 나선형으로 발전 과정을 보인다.

광사넷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면, ① 사회적 자본 기반 형성기, ② 사회적 자본 생성기, ③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기, ④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와 생산기로 나누어 해석해 보았다.

1) 사회적 자본 기반 형성기(~ 2014년)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반은 제도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는데, 그 기반은 광진주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운동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광진 지역 시민운동은 감시와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자활사업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태동과 그 지역의 도시빈민들을 포용하는 공

동체의 복원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적 자본 생성의 토대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사회적 자본 생성에 필요한 토대가 준비되는 단계이며, 사회적 자본 생성에 영향을 준 ‘호의의 시작’ 과 ‘배려로의 전환과 공감’ 을 일으키는 기반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호의의 시작: 관계의 개방성과 접촉의 출발점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 기반 형성기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시작된 활동가의 접촉과 관계 맺기, 즉 ‘호의의 시작’ 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때의 호의는 단순한 일방적 행위로 볼일 수 있으나, 이는 공식적 보상이나 교환의 기대 없이 제공된 무상이자 자발적인 사회적 접촉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박현지는 “조직도 잘 몰랐지만 편하게 친해졌다” 라고 회상했고, 유채원은 “그냥 돌아다니며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갔다” 라고 하여 부담 없는 관계 맺기였다고 회상한다. 이처럼 초기 활동가는 적극적 설득이나 명시적 목적 없이도 다양한 주체들에게 다가갔고, 이는 그들에게 관계 형성의 장벽을 낮추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호의’ 는 일방적이며 비공식적인 접근(구체적 요구나 이해 없이 시작됨),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이타성(자기 이익보다는 상대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계의 문을 여는 신호(말보다 태도와 존재로부터 인지됨)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호의는 아직 ‘배려’ 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제스처(gesture)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배려로의 전환: 진정성의 인증과 공감

Offer는 ‘배려’ 가 효과적인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그 행위

가 진정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단순한 호의는 수혜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고 일관되며, 개인적 이해득실을 초월할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한 ‘배려’로 전환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인정’이 이루어질 때, 수혜자는 ‘공감(sympathy)’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 생성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전환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구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김민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렬한 느낌”을 통해 존재 자체를 환대받는 경험, 즉 단순한 접촉이 아닌 인정받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이는 배려가 단순한 정서적 친밀감과 다른 차원의 사회적 수용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조희락은 “이견을 포용하고, 주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리더십”을 통해 민주적 수용성과 공공선 지향을 강조했다. 이처럼 호의가 일관되고 도덕적 맥락 속에서 반복될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배려의 진정한 신호로 인식하게 된다. 이때의 배려는 수용과 환대의 진정성(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 공공성을 우선하는 비이기적 방향성(공공선에 대한 관심), 일관된 윤리적 실천(덕성 기반의 지속적 행동), 내면화된 신뢰(제도적 강제가 아닌 도덕적 권위에 기반한 신뢰 형성)의 특징을 갖으며, Offer가 말한 “호의는 배려가 될 때만 사회적 자본의 매개가 된다”라는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이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은, 수혜자가 호의를 단순한 전략이 아닌, 비이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려로 인식하고 감응하는 것이다.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 기반 형성기는 ‘호의의 시작’이 ‘배려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 생성기(2014년~)

광진 지역의 초기 활동가의 진정성 있는 호의의 시작으로, 인증과 공감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호의를 배려로 인식하게 된다. 초기 활동가들의 호의적 방문,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관계 유지, 그리고 반복된 만남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발화되는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생성기를 세 가지 순서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생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인상 그리고 반복된 상호작용, 둘째, 신뢰의 생성, 셋째, 생성된 신뢰를 매개로 한 호혜 관계 형성이다.

(1) 참여의 생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인상 그리고 반복된 상호작용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광사넷으로의 가입 행위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생성되는 행위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친분, 가치에 대한 공감, 사회적기업으로의 책임의 다양한 이유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나, 그 맥락은 진정성 있는 호의에 대한 배려로의 전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소개로 만나 가입했다’, ‘권유로 가입했지만 편하고 친해졌다’고 구술하여 호의를 참여로 반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지만, 몇 번을 나가면서 언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구술하여 반복된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광사넷의 정기 회의와 협동조합적 운영구조를 통해 점차 상호 배움과 신뢰를 쌓아갔으며, 이러한 경험을 교육적이고 체계적이며, 함께 커져가는 눈덩이 같은 관계로 인식한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지속적 교류 속에서 형성되는 ‘의무와 기대’를 통해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반복된 상호작용이 사회적 자본을 축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신뢰 생성

신뢰(trust)는 ‘참여의 생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인상 그리고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광사넷에서의 반복된 만남과 상호 작용을 경험하며 신뢰를 생성하였다. ‘만나는 횟수가 늘수록 친해지고, 부탁이 편해졌다’라고 하여, 신뢰 생성이 교류의 빈도와 관계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매월 만나며 서로 도와가며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고 인식하게 되며 신뢰가 생기게 되었고’, ‘타인에 관한 호의와 협력적 태도로 인해 신뢰가 높아졌다’라고 구술하였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서로에 대한 부침이 있었고 그 부침을 넘어서며 신뢰가 생겼다’라고 구술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는 결국 신뢰는 ‘참여의 생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인상 그리고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신뢰의 생성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구조가 자리 잡는 과정이며, 호혜 관계 형성에 주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호혜 관계 형성

호혜성이란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계산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개념은 내가 오늘 돕지만, 다른 누군가 미래에서 나를 돕는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이다(Putnam, 2000).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반복적인 상호작용, 신뢰 생성의 과정을 통해 호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복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지속된다’라고 하였고, ‘서로의 필요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신뢰’를 언급하였다. ‘신뢰를 통해 나도 도와주고 연대하고 싶다’라고 진

술하여, 신뢰가 호혜 관계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신뢰는 보상에 대한 즉각적인 계산을 넘어 호혜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뢰로 인한 호혜적 상호작용은 일반화된 호혜성을 형성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신뢰가 호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구조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기(1차 기능적 작동기, 2015년~)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제도화 가능성이 있는 지속적 관계망을 통해 상호 인지 및 인정을 전제로 동원 가능한 자원들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의무와 기대, 정보 채널, 규범과 제재’ 등의 구조적 요소로 보고, 이들이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광사넷의 1차 소비와 생산기는 사회적 자본이 동원 가능한 자원이 되어 협력 활동에 중첩적으로 소비되고, 생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협력 활동을 일으키는 기능으로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호혜 관계 속에서 협력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연스러우니 소개도 받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시너지가 났다’라고 하며, MOU 체결, 주민기술학교의 공동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하였다.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협업하면 이해관계가 부드럽게 조정된다’라고 하며, 신뢰가 협력의 조정 비용을 줄이고 관계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혼자서는 망설였던 일도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여, 신뢰가 위험을 감내하고 협력을 지속시키는 심리적 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협력 활동이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라고 한다. 믿고 맡겨주니까 시도하게 되고, 시도하다 보니 경쟁력이 생겼다고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가 있다. 그의 구술은 사회적 자본이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Coleman(1988)의 주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협력이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해 1년간 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후 역량 강화로 5천만 원의 가치 상승 효과를 얻었다' 라고 말하여, 사회적 자본은 협력 활동을 통해 호혜 관계를 넘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로의 협력 활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구조를 갖춘 초기의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인 사용으로, 공통적 필요인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이 소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협력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 실현보다는 개별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Lewicki & Bunker(1995; 1996)는 신뢰는 “ 이해타산적 신뢰-지식의 신뢰-동일화의 신뢰의 과정으로 발전한다.” 라고 주장한다.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해타산적 신뢰(calculus-based trust)는 신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를 지키는 단계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신뢰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한다(임선영 2016).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기는 이해타산적 신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호혜의 관계에 의한 협력 활동을 통해 개인적이며 공통된 과제에 대해서 이해타산적으로 협력 활동을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타산적 신뢰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과정에서 네트워

크의 연대 의식과 규범을 싹트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호혜 관계에 의한 협력 행위는 개별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연대 의식과 규범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1차 생산으로 연대 의식의 확대와 규범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개인 간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과 규범을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신뢰가 호혜의 협력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연대 의식과 공동체의 규범으로 다시 생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규범, 신뢰가 상호작용하면서 조정·협력을 촉진하는 특징으로 정의하며, 시민 참여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러한 요소가 강화·재생산된다고 하였다. 특히 신뢰와 규범이 공동체 내부에 깊게 뿌리내릴 때, 공동체는 보다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광사넷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협력을 통해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가서,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연대 의식의 확대

사회적 자본의 1차 생산으로 연대 의식의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혜의 협력 활동은 네트워크 내의 연대 의식을 강화해 간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왜 지원받는지 몰랐지만,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존재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이는 연대 의식이 협력의 경험을 통해 인지되고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마음이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라고 진술하며, ‘연대성은 가진 80%가 20%의 이기성을 제어한다’ 라고 설명하여, 연대 의식이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매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연대 의식의 확대는 사회적 자본이 제도적 규범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규범의 형성

사회적 자본은 연대 의식의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의 규범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이 확장되면서 차츰차츰 네트워크의 규범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의견을 차별 없이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규범’과 ‘공동의 성과와 실패를 특정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집단책임의 규범’을 언급하였으며, ‘정확한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신뢰가 쌓인 이후에는 수수료 인상과 같은 규범적 결정도 쉽게 합의되었다’라고 말하여, 신뢰가 규범의 수용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상호작용과 일정 수준의 폐쇄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광사넷의 경우 폐쇄성은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대 의식이 심화되면서 형성된 응집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부에 대한 배타적인 작용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공동의 책임감이 응집력을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Portes(1998)는 사회적 자본의 작동 메커니즘 중 하나로 제한된 연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동일한 집단 내부에서의 정체성과 유대감이 강화될 때 내부 규범 준수와 압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고 한다. 광사넷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은 이러한 제한된 연대와 비슷한 결과로 작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호혜의 협력과 연대의 내면화가 제도적 규범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Portes(1998)는 ‘과잉사회화’를 우려하였다. 광사넷의 구성원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광사넷에서의 규범은 외부로부터 강제된 제도적 규율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Lewicki & Bunker(1995; 1996)는 신뢰를 이해타산적 신뢰-지식의 신뢰-동일화의 신뢰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한다.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해타산적 신뢰(calculus-based trust)와는 다르게 지식의 신뢰(knowledge-based trust)는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단계이다.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기를 지식의 신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연대 의식의 확장과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타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가면 신뢰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와 생산기(2차 기능적 작동기, 2022년~)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는 연대 의식과 규범 형성으로 네트워크의 결속이 더욱 탄탄해진 후, 관계와 네트워크의 외연적 확장을 위해 사회적 자본이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행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자원으로 소비되어 외연적 확대와 내부의 조정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에 기능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관계와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작용을 보여준다. 인철은 광사넷의 교육과정 개발에 초청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지역성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거주지를 인근으로 옮겨 참여하게 되었다. 오정빈은 운동회라는 비공식적 교류의 장을 통해 다양한 기업대표들과의 관계를 확장하여 사업적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김민지와 공은영은 광사넷의 창업 지원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내부의 신뢰와 정체성을 강화하여 구성원 간의 응집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후자는 상이한 집단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와 자원이 교환되는 통로로 작용한다. 광사넷의 참여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연대의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강한 연대를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외부와의 접촉과 협업을 촉진하는 약한 연대를 형성한다.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약한 연대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을 연결하며, 정보와 기회의 흐름을 매개하는 핵심 통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강한 연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신뢰가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면, 약한 연대는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성을 확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결은 사회적 자본을 교량형으로 발전시킨다.

광사넷의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대 과정은 결속형과 교량형의 사회적 자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강한 연대의 힘은 외부와의 약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약한 연대는 다시 강한 연대를 심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Coleman(1988)은 신뢰와 규범을 사회적 행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정이 가능할 때, 관계망은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확대된다. 광사넷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로, 네트워크의 조정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용되면서,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장이 무질서한 팽창이 아니라 조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을 소비로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를 조정하여, 사회적 자본이 교량형으로 발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2차 생산은 사회적 자본이 개별적인 자산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 발전하며 차세대로 전수되는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을 심화시켜 개인과 특정 집단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고도화시키는 기능적인 작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광사넷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호혜 속에서 형제애적 유대와 성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Putnam(1993)은 개인과 가족 및 특정 집단에 국한되었던 사회적 자본의 차원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의 2차 생산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발전하여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깊어지는 유대와 형제애, 그리고 성숙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유대가 깊어지며 형제애를 느끼며, 인격적인 성숙감을 경험하였다고 구술한다. ‘자주 모이니까 형제애가 생긴다’ 라고 하였고, ‘광사넷의 구성원들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형제자매 같은 이웃’ 이라고 구술하였다. ‘연대의 구조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인하며 성숙해 간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인간적 성장까지 이룬다’ 라고 강조하였다.

(2)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이익 추구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은 ‘광사넷의 비전은 개별기업의 사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공동의 비전’ 이라고 하였으며, ‘광사넷은 사업의 성공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좋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누구를 낙오시키지 않고 다 같이 잘되기를 바라는 분위기,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제적 이익과 인간적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성공 모델’ 이라고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와 같은 구술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작용하며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박현지의 사회적 관계로 만났지만, 경제와 사업을 공유하며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관계라는 표현은, 사회적 자본이 인간관계를 넘어 경제적·정서적·도덕적 연대의 통합적 자본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ewicki & Bunker(1995)는 신뢰를 이해타산적 신뢰-지식의 신뢰-동일화의 신뢰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해타산적 신뢰(calculus-based trust)는 신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를 지키는 단계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신뢰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다(임선영 2016). 다음으로 지식의 신뢰(knowledge-based trust)는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동일화의 신뢰(identification-based trust)는 상대방 또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 규범, 가치 등이 개인의 것과 일치함으로써 그것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단계이다(임선영 2016).

사회적 자본의 2차 생산에서는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을 동일화의 신뢰로 생산·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3) 공동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오스트롬(1990)의 공공자원 관리 연구는 목초지나 물 공급과 같은 공공재의 관리가 일부 지역에서 성공하고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 이유는 해당 공동체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은 ‘신뢰 위에 경제를 쌓아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연대의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고, ‘만 명 소비자 모델이 경제와 신뢰를 결합한 획기적 사례가 되리라’ 고 전망하였다. ‘쌓아온 신뢰가 거래관계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비스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 라고 하였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관계가 더 많은 성과를 낳았다’ 라고 구술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된 신뢰와 호혜의 협력은 정서적 차원과 사회적 규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 자산으로 기능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비물질적 생산요소로,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이 축적될수록 경제적 성과 역시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자본이 심화된 공동체에서는 신뢰와 호혜의 경제가 형성된다. 신뢰와 호혜의 경제는 경제적 성취에 국한되지 않고,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대안적 경제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광사넷의 사례는 사회적 자본이 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경제적 행위를 재구성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호혜적 규범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광사넷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발전으로 경제에 호혜를 붙여넣어 ‘경제의 재사회화’ 라는 실천적 전략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차세대로의 신뢰 확대와 전수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은 ‘기존의 신뢰가 새로 오는 세대에게 확산되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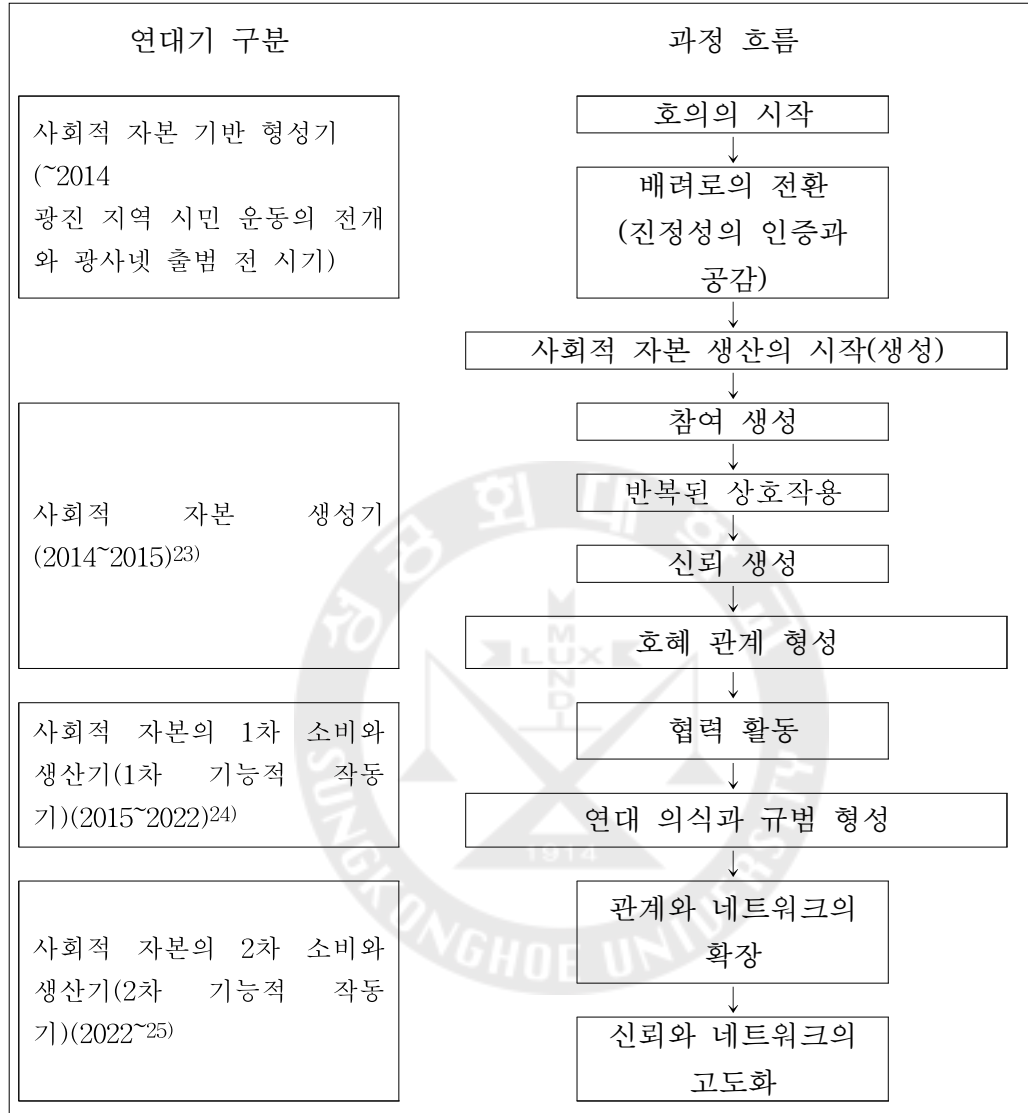
다’ 라고 강조하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환대하고 포용해야 한다’ 라고 구술하였다. ‘가치 지향적 인물을 더 찾아 신뢰망을 넓히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구술은 사회적 자본이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재생산되어 차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사넷 구성원들이 말하는 차세대에 대한 신뢰의 확장은 세대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의 재생산’ 과 ‘관계의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는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세대 간 전수를 통해 제도적 자산으로 발전하며, 공동체의 존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사회적 자본의 2차 생산에서 광사넷의 신뢰와 네트워크는 고도화를 낳는다. 신뢰는 ‘형제애적 연대’ 로 심화되었고,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경제적 이익은 공동의 비전과 공동체의 이익으로 고도화되었다. 심화된 신뢰와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차세대로의 전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역사적으로 계승하는 전승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Ⅳ-5]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흐름 종합



23) 이 시기는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이 초기 생성되는 단계로,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참여가 생성되어 반복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뢰가 생성되고 신뢰는 호혜 관계가 형성(생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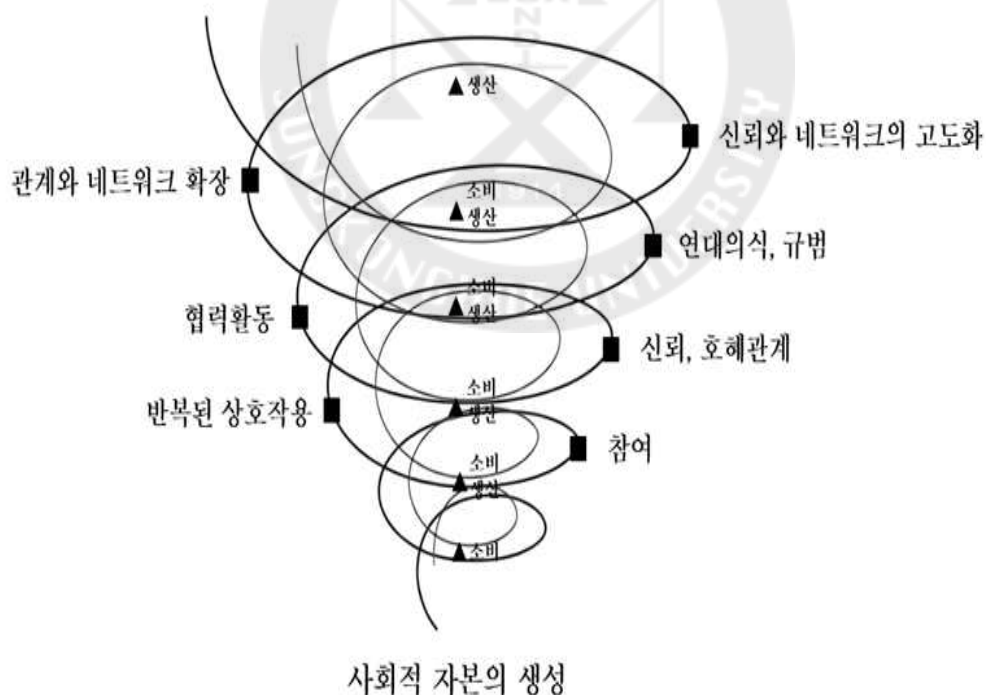
24)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촉진케 하는 기능을 주로 하였으며, ‘이해타산적 신뢰 단계’에서 ‘지식의 신뢰 단계’로 사회적 자본이 심화하면서, 규범이 형성(생산)되었으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보인다.

25)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하였으며, ‘지식의 신뢰 단계’에서 ‘동일화의 신뢰 단계’로 사회적 자본이 심화하였으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변화하였다.

위의 도식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은 생성의 기반 형성 → 생성 → 1차 소비와 생산 → 2차 소비와 생산으로 선형적인 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와 생산은 중첩되고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생성된 후 소비되는 순간 생산되며, 생산되는 순간 다시 소비되는 소비와 생산이 중첩해서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한 단계 더 심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생성 이후 소비되고 생산될 뿐만 아니라, 중첩해서 생산되고 소비되어 소비와 생산이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며 순환적으로 작동하여 다른 특성을 지닌 사회적 자본으로 심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나선형 그림은 표현하였다.

[그림 IV-6] 나선형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VI.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함의는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생성되고 심화하는지와 사회적 자본이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1.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를 통해 보고 싶은 연구 주제는 첫째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의 생성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경제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형성 과정으로 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다.

(1)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의 생성 과정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반은 제도적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는데, 그 기반은 초기 활동가의 ‘호의의 시작’과 ‘배려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 기반 형성기에 특정한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시작된 활동가의 접촉과 관계 맺기, 즉 ‘호의의 시작’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관계의 개방성과 접촉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호의는 수혜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고 일관되며, 개인적 이해득실을 초월할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한 ‘배려’로 전환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인정’이 이루어질 때, 수혜자는 ‘공감(sympathy)’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반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의 추상성과 비물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생성의 시기

는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앞에서의 내러티브 내용으로 추론해 볼 때 광사넷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생성은 대략 2014년 정도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 생성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하나인 참여의 생성과, 생성된 참여의 반복된 상호작용으로 인한 신뢰의 생성, 생성된 신뢰를 매개로 한 호혜 관계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을 참여는 지역사회의 호의의 시작이 배려로 전환되면서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여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의에 응답하는 사회적 자본의 생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광사넷에 참여는 진정성 있는 호의에 대한 배려에 응답이었으며 참여 이후 반복된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신뢰가 생성되었으며, 신뢰는 호혜 관계 형성을 위한 주요한 기능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호혜 관계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성격의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기(1차 기능적 작동기, 2015년~2022년)와 2차 소비와 생산기(2차 기능적 작동기, 2022²⁶⁾년 ~ 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심화하면서 그 작동이 다르며 특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1차 소비와 생산기(1차 기능적 작동기, 2015년~2022년)의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촉진케 하는 기능을 주로 하였으며, ‘이해타산적 신뢰 단계’에

26) 1차 시기와 2차 시기의 2022년이 중복되어 있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의 추상성과 비물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심화 시기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기가 어렵다.

서 ‘지식의 신뢰 단계’로 사회적 자본이 심화하면서, 규범이 형성(생산)되었으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보인다.

광사넷의 참여자들은 호혜 관계 속에서 협력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협력 활동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자본은 협력 활동을 통해 관계적 신뢰를 넘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소비와 생산기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의 초기 단계로서, 공통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문제인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동되었다. 이는 Lewicki & Bunker(1995; 1996)의 ‘이해 타산적 신뢰’가 작동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발전하면서 연대 의식의 확대와 규범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신뢰가 호혜의 협력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으로 심화된다.

연대 의식의 확대는 Portes(1998)의 제한된 연대의 기재를 제공하였으며, 동일한 집단 내부에서의 정체성과 유대감이 강화하여 규범 형성과 준수를 강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와 생산기(2차 기능적 작동기, 2022년~)의 사회적 자본은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하였으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식의 신뢰 단계’에서 ‘동일화의 신뢰 단계’로 사회적 자본이 심화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로 연대 의식과 규범 형성되어, 네트워크의 결속이 더욱 탄탄해진 후 관계와 네트워크의 외연적 확장으로 이어진다. 광사넷의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대 과정은 Putnam의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의 사회적 자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강한 연대의 힘은 외부와의 약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약한 연대는 다시 강한 연대를

심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한 연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신뢰가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면, 약한 연대는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성을 확보한다고 하였다(Granovetter, 1973).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적 행위의 조정이 가능할 때 관계망은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확대된다(Coleman, 1988).

광사넷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장이 무질서한 팽창이 아니라 조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조정을 통해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2차 생산으로 사회적 자본이 개별적인 자산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 발전하며 차세대로 전수 된다. Putnam이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바라본 것 같이 이 시기의 광사넷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특정 집단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사넷의 심화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호혜 속에서 형제애적 유대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공동의 비전과 이익 추구로, 공동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발전하여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Lewicki & Bunker의 지식의 신뢰에서 동일화의 신뢰로 발전했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차세대로의 신뢰 확대와 전수로 이어진다.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의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 형성의 기능과 같이 광사넷의 세대 간 전수를 통해 제도적 자산으로 발전하며, 공동체의 존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형성 과정으로 본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경제에서의 의미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형성은 호혜 관계를 경제에 불어넣는 ‘경제의 재사회화’의 실천적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부르니(2004)는 게임이론으로, 칼 폴라니(2009)는 역사적 고찰로, 오스트롬(1990)은 다양한 사례조사로, 장원봉(2007)은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고찰로 주장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고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광사넷 내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사회적경제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하였고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일 사례이지만 사회적 자본이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다시 사회로 재배태하게 하는 실천적인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심화는 광사넷에 참여한 개인의 이익에 국한된 경제 활동을, 호혜성을 지닌 공동의 경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심화로 협력 활동과 연대 의식, 규범이 형성되며, 관계와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더욱 심화된 신뢰와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개별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체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칼 폴라니(1944)가 언급한 개인을 원자화하는 맷돌 같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다시 사회로 재배태되는 경제로, 사회적경제로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실천할 만한 의미가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함의와 제언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제까지의 국내 연구는 사회

적 자본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성과적 측면의 매개적인 요소로만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단일 사례²⁷⁾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한 최초의 연구이며,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이루는 행위들이 사회적 자본을 심화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행위 요소로 구체화하였기에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킨 행위적 요소 즉 ‘호의의 시작 → 참여 → 반복된 상호작용 → 협력 활동 → 규범 형성 →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조정과 교량적 연결 → 공동의 비전 형성 → 차세대로 전수’를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실천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에 대한 제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들에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야 하며, 그 첫 시작은 ‘진정성 있는 호의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진정성 있는 호의의 시작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사회적경제로 연구의 범위가 국한되지만, 사회적 자본의 역사적 기원을 그 형성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상준(2004)은 Putnam이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자원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기원을 관계의 형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일동기 또는 협력적 전통의 저수지로 설명

27)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광사넷 외에 사회적 자본이 생성되어 심화한 사례를 찾기는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있어, 논거가 공회전하는 환원적 문제에 빠져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기원의 실마리는 관계 자원의 관점에 맞춰 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김상준(2004)의 주장과 같이 관계의 형성 과정으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원을 한 단계 더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본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원은 활동가의 호의의 시작, 그리고 진정성으로 인한 호의에 대한 배려로의 전환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사회적 자본의 생성 기원의 실마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심화하는지를 구체적인 동태적 과정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이론들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였기에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자본이 활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그 개인과 지역사회와 상황적 요소를 분석하는 정태적인 원인분석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을 생성부터 심화까지 동태적으로 그 과정을 세밀하게 고찰하여, 활발하지 않은 곳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가져야 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은 ‘기반 형성 → 사회적 자본의 생성 → 사회적 자본의 1차 소비와 생산 → 사회적 자본의 2차 소비와 생산’으로 생성 이후에 소비와 생산이 중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나선형으로 사회적 자본이 발전하며 심화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참여, 반복된 상호 작용, 신뢰, 호혜 관계의 형성, 협력 활동, 연대 의식과 규범 형성,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조정의 교량적 역할로의 기능으로도 작동했음을 알 수 있

다. 이 과정의 고찰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구현하여 사회적 자본을 심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작용 요소와 현상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면 ‘호의의 시작, 진정성 있는 호의의 배려로의 전환 → 참여와 그에 따른 긍정적 인상 → 반복된 상호작용 → 신뢰 → 협력 활동 → 규범 형성 →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의 조정과 교량적 연결 → 공동의 비전 → 차세대로 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나열된 과정을 의도적으로 실행하면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가설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세 번째와 연결하여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의 고찰은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개념 정의²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Portes(1998)가 비판한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개념이 그것의 정의인지, 기능인지에 대한 논란을 풀어내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그 심화 정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서 지역 사회까지 확장되면서, 개인이 활용하는 자원부터 공동 경제로의 자원까지

28)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관계망에로의 귀속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게 되는 실제적 잠재적 총체이다.

Col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이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 요소이다.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을,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조직의 특징이다.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나 규범의 공유이며, 상호신뢰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Woolcock(1998)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Woolcock, 1998).

로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의를 개인, 사회 조직, 관계망과 협력, 자원 등 다양한 차원과 기능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념 정의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와 상응하게 사회적 자본의 심화 정도에 따른 학자들의 개념 정의도 Bourdieu(1986)의 개인 차원과 Fukuyama(1995)의 공동체의 구성원 차원, Woolcock(1998)의 개인과 집단 모두의 차원, Putnam(1993, 2000)의 지역사회 차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정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화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의 중 논란이 되는 기능적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심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은 기능적으로 작동하여 사회적 자본을 심화시키고, 그 심화한 사회적 자본은 또 다른 개념을 낳고 있다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개념이 그것의 정의인지, 기능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의는 심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이 심화 정도에 따라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개념을 달리하였기에 기능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개념 정의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정민. (2016). 성인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교육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 고경훈, 안영훈.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Dec 31, 2012 2012:1
- 고미. (2017). 긍정심리 자본 사회적 자본과 조직시민행동 혁신 행동 간의 관계 : 조직공정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인사전공 2017.8.
- 고영은. (2021). 마을 축제 참여 경험, 마을 축제 만족도, 사회적 자본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광진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5). 1차 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6). 해산총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7). 2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8). 3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9). 4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0). 5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1). 6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2). 7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3). 8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권경희. (2003). “사회자본의 연구 동향과 과제.” 『지리학 연구』 23:27-50.
- 구혜정. (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학위논문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김권수. (202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경영 성과의 매개 효과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 학위논문(박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융합산업학과 경영학.
- 김미영. (2020). 사회적 자본으로서 복음의 공공성 연구: 21세기형 프로테스탄티즘 연구. 신학과 실천 719~755.
- 김미영. (2024).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4-02 14(1):59-95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 김연순. (2018) 사회적 자본이 산업단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정보기술의 선행효과에 대한 산업단지별 분석, 학위논문(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김영준. (2016).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 도시공학과.
- 김정원. (2007).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 연구, 학위논문(박사), 全北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 김진상. (201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위논문(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김필진. (2018). 사회자본으로서 골프 참여자의 네트워크와 신뢰, 거래비용, 만족의 관계, 학위논문(박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태우. (2004). 산업지구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해니. (2022).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 김희숙. (2007). 사회적 자본 축적에 따른 중소기업의 역량 진화 모형개발과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진화경로 추적 :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 OD(Organizational/Dynamic capability)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 루이지노 부르니 & 스테파노 자마니. (2015).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2015.
- 루이지노 부르니. (2004). 『콤무니타스 이코노미』. 북돋움. 2020.
- 박미경. (2016). 지역사회교육 운동 전개 과정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시민사회전공.
- 박상하. (2011).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의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탐색적 접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8, 2011. 9. 1. pp. 301-329.
- 박용순. (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 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박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 관광개발학과.
- 박혜원, 문형구. (2006).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집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보, 자원,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집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2006년도 하계 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명희. (2018). 평생학습의 사회적 자본 형성 연구 : 평생학습 도시성인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인적 자원정책전공.
- 서카리스. (2021).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효능감과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학위논문(박사), 서울한영대학교대학원 :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
-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2024). 사회적경제로 사회복지하기. 한울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vol., no.75, pp. 11-46 (36 pages)
- 신명호. (2025). 사회적경제가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는 법: 광진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vol.- no.124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서울: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 일하는 사회>.

- 엘리너 오스트롬. (1990).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랜덤 하우스. 2010.
- 여미영·임재영. (2015). 사회적경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3호(2015), pp. 303-322.
- 여선정. (2019). 로컬푸드 직매장의 도농 관계망 확산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 ‘대구 협동조합 농부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 사회적경제학과.
- 오영수. (2021).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가치 창출 경영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 자산관리서비스전공.
- 유미현. (201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 유석춘 (2022). 「사회적 자본과 연대의 구조적 조건」, 한국사회학연구, 56(3), 45-72.
- 유석준,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 「사회발전연구」 8.
- 유승태. (2017). 사회적기업의 사회자본 형성과 노동 통합 효과 : 학교 밖 청소년 노동 통합형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사회적경제전공.
- 이승일. (2017) 변혁적 리더십, 사내 기업가정신, 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상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인사·조직전공.
- 이영연. (2021).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삼척시 구공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 공공행정학과.
- 이은성. (2021).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흥시 월곶동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 이은주, 루이지노 브루니의 ‘상호성(Reciprocity)’ 개념 고찰, 인문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2024.02.29.), p. 773-795
- 이은주, 박용수. (2023). 시민적 협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협력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 NGO, 21(2), 42, pp.139-194 Nov.
- 이홍택. 2018.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에 관한 개념들: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3). 254-269.
- 임상연. (2003). 도시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 임선영. (2016). 지역사회 취약성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박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일자리위원회.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장순철. (2019).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흡수 역량과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집 출판사.
- 장원봉. (2007).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 장현숙. (2019). 조직사회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 정지훈, 김태영. (2017).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 조광래. (2008) 혁신 클러스터 성공 조건의 탐색적 연구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조병준. (2021) 조직구성원의 사회적기업가정신과 CEO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박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 안보·공익경영학과.
- 조임숙. (2024). 초중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연구, 학위논문(박사), 공주대학교 대학원.
- 주은진. (2017).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마을 교육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과정 : P 마을의 사례,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 교육학과 평생교육.

- 주조흥. (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Marketing Performance of Farmers' Specialized Cooperatives in China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Learning = 중국 농민전업협작사의 사회적 자본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회개발과 조직학습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적경제 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전공.
- 자끄 드푸르니, 마르뜨 니센 외. (2017). 『사회연대경제』. 착한책가게. 2021.
- 지민준. (2020). 리빙랩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진성희. 2016.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광진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추양현. (2020).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정신, 시장 지향성과 사회적기업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금오공과대학교 : 컨설팅학과 컨설팅학과.
- 최은화. (2019). “소상공인의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 운영전략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칼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길. 2009.
- 타나카 나츠코. (2005).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아르케. 2014.
- 하락중. (2017) “사람책도서관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창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사회적기업 보고서. 2017 재수정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2).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 도서출판 한살림 2022.
- 홍예담. (2014)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 :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금융업 발달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연구방법론

- 김미자. (2024). “사립유치원의 교직 생애 경험 내러티브 연구” , 중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외. (2014). 「당사자, 한국의 고용복지를 말하다 나도 일하고 싶다」 , 인간과 복지.
- 안경희. (2020). “오감 명상을 통한 여성 한 부모의 유기 불안 치유 경험”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명상상담전공 박사학위논문.
- 여인우. (2018). “부적응 행동 유아를 체험하는 교가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유명숙. (2023) “중년여성의 부부위기 경험에 대한 명리학적 내러티브 연구”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황순찬. (2014). “자살행동에 대한 발견적 탐구 - 가장 역설적인 자기표현” ,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 Alejandro Portes.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 1-4.
- Bian, Yanjie. (1997). “Br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Connection, Bridge, and Job Search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3):336-385.
- Bouchard, M. J. (Ed.). (2009). The worth of the social econom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o. 2). Peter Lang.
- Birks, Melanie and Mills, Jane(2015). 『근거이론의 실천, 공은숙 이정덕 공역, 서울:학지사: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2nd ed.).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i, L., Reciprocity, altruism and the civil society: in praise of heterogeneity, New York: Routledge, 2008.
- Burt, Ronald. (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Nan Lin, Karen Cook, and R. S. Burt.(eds.)

-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London: Sage.
- Chase, S. E. (2011). *Narrative Inquiry: Still a Field in the Making*.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Sag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Clandinin, D. J., & Rosiek, J. (2007). *Mapping a Landscape of Narrative Inquiry: Borderland Spaces and Tensions*.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pp. 35-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landinin, D. J. & F. M. Connelly (202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Creswell, J. W. (2015).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 Miller, D. L.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https://doi.org/10.1207/s15430421tip3903_2
- Evans & Syrett. (2007). *Generating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007; 14; 55.
- European Commission. (2003). "The Contribu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Economy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 p.130. <http://cordis.eu/docs/publications/>
- Francis Fukuyama.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1980).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The Laidlaw Report. ICA.
- James Coleman.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s94-s121.
- James Coleman.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enneth Newton,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March/April, pp 575-586.
- Labov, W., & Waletzky, J. (1967). Narrative analysis: Oral versions of personal experience. In J. Helm (Ed.), *Essays on the Verbal and Visual Art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ewicki, R. J., & Bunker, B. B. (1995). "Trust in Relationships: A Model of Development and Decline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Paris: OECD.
- Offer, Avner. 1997. "Between the gift and the market: the economy of regard" . *Economic History Review*. 3(1997). 45-476.
- Offer, Avner. 2013. " Regard:".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Reciprocity and Social Enterprise* (Edward Elgar Publishing, 2013)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re Bourdieu.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de,),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Greenwood, pp,241–258.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Portes, A., & Sensenbrenner, J. (1993), “extend access to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 Robert D. Putnam.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35–42.
- Robert D. Putnam.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 Robert D. Putnam.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Aldine–Atherton.
-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Taylor, M. (1982).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yne Baker. (2000). Achieving Success through Social Capital.
- Waldinger, R. (1995). The ‘other side’ of embeddedness: A case study of the interplay of economy and ethnic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18(3), 555–580.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Zuo, Peixin. (2022)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nd its benefits : a case–based qualitative study of internationalising SMEs. University of Sheffield,
- Zuo, (2022) A qualitative approach to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Experiences of a cohort ... Sciencedirect.

3. 인터넷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 <http://www.ksenet.org>.



ABSTRACT

Social capital formation process in the social economy Research-Focusing on the Gwangjin Social Economy Network

Park, yongso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dynamic process of how the social economy, which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generates and deepens social capital, a key element of its identity. While social capital has been consistently cit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social economy vitality, research on the specific processes through which it is generated and developed has been lacking.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we selected the Gwangjin Social Economy Network, a self-sustaining and robust solidarity organization in the Seoul Gwangjin area, as a case study. Gwangsane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cessful efforts to overcome government dependence and establish an advanced cooperative system, including mutual transactions, cooperative fund creation, and industry-specific sub-committees. As a research method, 14 research participants belonging to Gwangsanet were selected and narrative inquir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and the collected oral data was

examined using the sematic (meaning-centered) narrative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economy develops in a spiral manner through the stages of creation base formation → creation → primary consumption and production → secondar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is as follows: beginning of goodwill → transition to regard → creation of participation → repeated interaction → creation of trust → forming a reciprocal relationship → cooperative activities → formation of solidarity and norms → expansion of relationships and advancement of networks.

During the formation phase of social capital, the unconditional "beginning of goodwill" from early activists was perceived by members as genuine "regard," laying the foundation for trust. During the creation phase, participation emerged in response to this regard, and through repeated interactions, trust was built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were structured. During the first consumption and production period, concrete cooperative activiti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trust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established,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and norms. During the second consumption and production period, the network expanded based on this strengthened sense of solidarity, entering a more advanced stage where a shared vision transcended individual interests and trust was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The ke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demonstrates that social capital is not simply a moderating variable of economic performance, but rather a practical strategy for "resocializing the economy," redeploying economic activity itself embedded social relationships. Second, by approaching the origin of social capit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forming relationships and finding it in the genuine goodwill and regard of activist, we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aking a step closer to understanding the origin of social capital creation. Third, by revealing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s not a linear development, but rather a spiral structure wher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verlap, this study provides a hypothetical foundation for policy-based planning and fostering of social capital. Fourth, by demonstrating that social capital plays a functional role in the process of deepening, influencing diverse definitions of the concept, this study provides room for interpreting various concepts of social capital—including functional on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al capital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identity of the social economy, and that the role of activists who practice genuine goodwill and the strategic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re essential for realizing the social economy.

Keywords: social economy,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formation process, Gwangjin Social Economy Network, economic resocialization, narrative research.